

‘마스크’ 5부제로 약국서 2장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정부 ‘마스크 안정화 대책’

내주부터…1500원으로 통일
신분증 확인해 중복구매 방지
日 생산량 1400만장으로 확대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적물량도 지금보다 300만 매 이상 늘리고, 판매가는 1500원으로 단일화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고시 개정안과 함께 확정됐다.

▶관련기사 2·3·4·6·10·12·13·18면
현재 10%로 제한한 마스크 해외 수출은 앞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도 50%에서 80%로 늘린다. 1000만 매 기준으로 공적물량 800만 매 중 200만 매는 의료·방역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0만 매는 약국,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한다. 판매가격은 1매당 1500원이다. 김 차관은 “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가 우선 지급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 수요를 고려해 민간 유통망은 20% 남겨두되 사전 승인·신고제를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공적물량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공적물량 구매하는도는 1인 2매(1주간)로 제한하고, 출생 연도에 따른 5부제 판매(월~금요일)를 시행한다. 월~금요일 중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토·일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 구매를 방지한다. 구매해도 제한과 5부제 판매는 9일부터, 판매 이력 시스템은 6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공급 측면에선 현재 1000만 매 내외인 마스크 일평균 생산량을 1개월 내 1400만 매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예비비 42억 원을 활용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한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실적에 따

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 확대 유도도 제공한다. 또 신규 설비 조기 가동, 타용도 설비 전환 및 노후 설비 개선,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13톤 수준인 멜트블로온(MB)필터 공급능력을 1개월 내 23톤으로 확충한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나선다. 근로자를 추가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추가고용보조금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고용센터를 통해선 생산업체 인력을 우선 알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마스크 시장 안정 시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에 일반국민·의료진용 비축을 검토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8일에서 22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본부에 대해선 신도 명단 등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총 6088명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그래도 봄은 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국민의 마음은 한겨울보다 얼어붙어 있지만 희망의 봄은 도심까지 찾아왔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驚蟄)’인 5일 서울 청계천엔 꽃샘추위에도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려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ak@

SK ‘新사업 혁신’ 입힌 새 사명 추진

건설·E&S 등 6곳 임시등기 등록
최태원 ‘확장성 등 기존 사명 한계’
GS건설도 새 사명 변경 속도

SK그룹이 사명 변경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그룹도 GS건설이 새로운 사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장동력 확보에 사활을 건 기업들이 ‘확장성’을 내세우며 혁신을 가속하는 모양새다.

5일 이투데이가 법원 등기소를 통해 SK그룹과 GS그룹 계열사들의 임시등기 현황을 파악한 결과 SK그룹에서는 SK E&S와 SK건설, SK루브리컨츠,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인천석유화학 등이, GS그룹에서는 GS건설이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9개의 신규 사명들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등기를 가장 먼저 개설한 곳은 SK건설이다. SK건설은 지난해 10월 21일 △SK크리에이트 △SK디펜션 △SK넥스트빌드 등의 상호를 등록했다. 본등기 기한

은 내달 18일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SK건설 관계자는 “여러 후보군 중 고민하고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입정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SK E&S의 경우 등록된 상호가 8개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월 4일 △SK넥스트립 △SK뉴엔 △SK앤서 △SK엔솔브 등 4개를 등록한 뒤 13일에는 △SK엔포트 △SK컨타뉴 △SK퓨로 △SK프로브 등을 추가 등록했다. 열흘 후에는 ‘SK센트라’라는 상호도 하나 추가했다. 업계에서는 SK E&S가 뒤늦은 시점에 이 사명 하나만을 올렸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SK E&S 관계자는 “다른 계열사들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사명 후보 안들을 검토 중”이라며 “추가로 새로운 후보 사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K E&S는 도시가스 사업 지주회사로 출범한 뒤 전력,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영역을 확장해왔다.

SK그룹 사명 변경의 ‘이정표’ 격인 SK이노베이션의 주요 계열사 4곳들도 지난 달 24일 한꺼번에 임시등기를 마쳤다.

SK루브리컨츠는 △SK커넥티브 △SK퍼스트웨이브 △SK넥스트모션, SK에너지는 △SK엔루브 △SK웨이즈 △SK프로니어 등을 두고 사명 변경을 고심하고 있다.

친환경 모빌리티 소재를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SK종합화학은 △SK엔스파이어 △SK엘리멘탈 △SK컨버전트를 올렸고, SK인천석유화학은 △SK휴모스트 △SK에코코스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내부에서 계열사별로 글로벌한 가치를 더 명확하게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경영환경이 안 좋아 시점은 상당 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9면에 계속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박종화 기자 pbell@

〈인터넷전문은행법〉

‘인뱅법’ 합의해놓고 부결시킨 여당

KT 특혜 논란에 與서 반란표
K뱅크 ‘경영 정상화’ 차질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특금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암호화폐 첫 법률이 마련됐다. ▶관련기사 8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법안 부결 처리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한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KT가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우리나라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 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결국 개정안이 다수의 여당 의원 반대표로 부결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는 정회됐다.

앞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관리한다는 법안이 공식 제정된 의미가 있다. 관련 업계도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편입의 첫 발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했다.

김하니 기자 honey@

“향후 1~2주가 고비”… 재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현대기아차 서울·경기지역 자율 재택근무 연장 검토
LG, 계열사에 시차 출퇴근·사업장 간 출장 금지 권장
SK울산CLX·LG 트윈타워 사내식당에 ‘테이블 가림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자 재계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달 말부터 도입한 재택근무와 유연 근무, 휴가 등을 연장하는 한편, 회사 내의 모임도 최소화하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근무자를 대상으로 자율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현대·기아차는 재택근무 연장을 검토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직원을 절반씩 나눠 격일로 재택근무하는 체제를 다음 주까지 이어갈 전망이다.

SK그룹은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온 재택근무를 1주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최근 주요 계열사에 재택근무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했고,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계열사가 재택근무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은 지난달 25일부터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애초 재택근무 기간을 약 2주로 예고했지만, 최근 학교 개학이 다시 미뤄지자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모든 계열사에 출퇴근 혼잡시간의 대중교통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차 출퇴근’, 사업장 간 출장 금지 등을 권장했다.

LG상사는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재택근무 기간을 1주일 더 연장해 이달 1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한화그룹도 주요 계열사에서 공동 휴가



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내식당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테이블 가림막이 설치된 가운데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그룹

와 재택근무 확대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화솔루션은 전날부터 근무조를 2개로 나눠 교대 근무에 나서는 동시에 시차 출퇴근제를 활용하도록 했다. 케미칼 부문과 첨단소재 부문은 금요일인 6일과 13일 두 차

레에 걸쳐 공동 휴가에 들어가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매주 금요일을 공동 휴가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두산그룹은 이번 주까지 출퇴근 시간 자율제와 주차비용 지원, 임산부 대상 재택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현재 가족 돌봄 휴

가 사용까지 권장 중인 두산그룹은 다음 주 근무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사내식당에서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자리를 띄어 앉도록 한 회사도 많아졌다.

SK울산CLX에서는 사내식당 입구에서 직원의 체온을 재고 열이 나면 출입을 자제시킨다. 테이블마다 칸막이를 설치해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거나 대화를 할 수 없게 했다.

LG그룹도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사내식당에 테이블마다 가림막을 설치했고, 구미와 평택, 창원 등 주요 사업장 식당에서도 이같이 조치했다. 그룹은 안내문에서 식당 이용 전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식당 내에서 이동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1~2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대 고비로 전망되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바이러스 유행” 지폐 소독하는 은행들

우리銀, 위안화 거래시 손소독… 韓銀, 금고 방역·화폐 고열 살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은행들이 지폐까지 소독하는 등 위생 강화에 나서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영업점에서 본점으로 보낸 현금을 방역하고 있다. 또 본점과 개별 영업점의 금고도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 통상 영업점별로 현금 보유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현금은 본점으로 보낸다. 본점에서는 현금을 정사(손상 화폐 분류)한 후 일부 자체 보관하고 남은 현금은 한국은행으로 보내기도 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을 일일이 소독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돈이 모이는 중간에서 방역에 나선 것이다.

위안화에 대한 특별 방역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위안화는 전부 본점 정사실로 송부해 소독한다. 또 고객에게 위안화 매입·매도시 손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은행 본부 출납센터에서는 현금 수송 시 건물소독과 함께 현금 소독을 현재 4회 실시하고 있다. 현금이 불출되거나 들어오기 전 쌓여 있는 상태로 소독을 실시한다. 일선 영업점에서는 고객과 지폐 관련 거래가 있을 때 비치된 손소독제를 활용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각 지점에서 한도 초과 현금을 본점으로 보내면 본점에서 해당 지폐를 방역한다. 본점에서는 외국인 방문빈도가 많은 지역 소재 지점에서 보내온 지폐에 대해서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본점으로 모이는 원화 화폐의 80%가량을 한국은행으로 보내서 신권 또는 사용권으로 교환하고 있다. 과거에는 30~40% 정도만 한국은행으로 보냈다. 영업점별 금고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 키트를 전국의 전 영업점에 배포해 수시 소독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지폐를 소독하기 위해 4일 지역별 업무지원센터 9곳에 분사기



1대와 20리터짜리 소독약 3통을 준비했다. 업무지원센터는 지역 내 영업점의 현금관리를 하는 곳이다. 서울에서는 서울 자금관리팀이, 경기도에서는 경기자금물류반이, 나머지 지역의 경우 지역업무

지원단이 업무지원센터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업무지원센터들이 영업점과 현금을 주고받을 때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지폐를 소독한다.

지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도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고려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들어온 화폐를 최소 2주간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에서 지폐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지폐가 150도 고열에 2~3초 노출되는 데다 포장지 내부 온도가 42도에 달해 살균 효과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ATM기 소독, 직원 마스크 착용을 잘 빠르게 시작한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폐까지 소독하고 있다”며 “금융권 전반에서 지폐에 대해 전반위 소독에 나서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범근 기자 nova@

aT가 함께 합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농식품 수급안정

식품산업육성

농수산물 수출진흥

농식품 유통개선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혁신

보다 나은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약품 나르는 자율주행 로봇… AI로 백신 개발도 진행

‘코로나 최전선’서 맹활약하는 4차산업 기술

방역 작업·물품 배송 등에 로봇·드론 적극 활용
5G 기술로 의료 데이터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

로봇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최전방에 있는 의료진에게 접촉 없이 빠르게 필요한 의약품들을 전달한다. 드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공중 방역 작업에 투입된다. 인공지능(AI)은 코로나19 백신을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큰 발전을 이룬 4차산업 기술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로봇, 드론, AI 등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수십 개 도시에서 격리 생활을 하는 약 5000만 명의 주민을 통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각종 산업용 드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열감지 센서, 고화질 줌렌즈, 방송용 스피커, 화학물질 분사기 등을 장착한 다양한 산업용 드론들이 방역 작업과 주민 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은 드론을 활용해 후베이성 바이양호 선착장에서 호수 반대편 마을까지 2km를 비행해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드론을 방역 작업에 투입했다. 시는 3일 산적초등학교, 산적중학교, 엄정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충원고등학교에서 드론으로 긴급 소독을 벌였다.

자율주행 로봇 역시 건물 소독이나 의약품

배송, 환자 서비스에서 맹활약 중이다.

상하이 ‘TMiROB’는 소독용 로봇 30여 대를 우한 중앙병원 등 6개 병원의 격리병실과 수술실에 배치해 과산화수소 분무기와 자외선 램프로 살균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클라우드마인드테크놀로지는 차이나모바일과 협력해 개발한 5G(5세대 이동통신) 기반 의료보조 클라우드 로봇을 우한과 상하이의 지역 병원에 투입했다. 이 로봇은 청소와 약품 배달, 환자 온도 측정과 검사 등을 수행한다.

국내 로봇 기업 휴립로봇도 방역케어 로봇 테미의 스마트 방역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휴립로봇의 테미는 비대면, 비접촉 및 자율주행 기능을 기반으로 △자가발열감지·진단·대응 △자동분사 손세정 비대면 운영 △방역·관제 솔루션 △운반·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각국 AI 업체들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홍콩에서 활동 중인 신약 개발 스타트업 인실리코메디슨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자사의 의약품 화합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약 회사들에 무료로 공개했다. 약물분자가 효과를 내려면 타겟으로 하는 한 가지 수용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독특한 모양과 전하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AI로 찾았다. 중국 바이두와 알리바바는 자사가 보유한 AI 기술을 여러 연구팀에 무료로 공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하



서울 고려대병원 로비에서 이동형 로봇이 내원객들에게 손소독제 사용을 권유하고 있다.



삼척 청년 드론방재단과 정선군 4H 연합회가 드론, 동력 분무기 등으로 강원 삼척지역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

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5G 기술은 스마트 진료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중증 환자의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T 영상 등 환자의 대용량 의료 데이터까지 안정적으

로 전달할 수 있다.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은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삼성전자의 상생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김 사장은 “삼성전자는 ‘착한 기술(Technology for Good)’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호주 대형 산불부터 바이러스, 그리고 미세먼지 등 전 세계적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재난 상황이 닥쳐온다”며 “기업들은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기술이 채울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피해 유통 대리점·협력사 살리자” 이통 3사, 상생자금 3000억 투입

SKT 1130억·KT 1040억·LG U+ 850억 지원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유통 대리점과 소상공인 협력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자금을 투입한다.

▶관련기사 12면

먼저 SK텔레콤이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유통망·네트워크 협력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해 총 1130억 원 규모의 종합 상생 방안을 내놔다. SK텔레콤은 코로나19에 따른 판매 감소로 유통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750여 개 대리점을 위해 이달 말 지급 예정이었던 인센티브 중 일부인 350억 원을 4월 조기 지급했다.

SK텔레콤은 유통망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 운영비 40억 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 대리점에는 휴대폰 매입대금 결제 기한을 1개월 연장(400억 원 규모)해 주고, 매장 운영비 10억 원도 지원한다. 또한 140여 개 네트워크 인프라 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3월에서 6월까지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이달에 조기 지급한다. 금액은 총 230억 원 규모로 이 중 약 60억 원이 대구·경북·부산 지역 업체들에 지급된다. 네트워크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중소 협력사들도 다음 달

받게 될 용역 대금 약 100억 원을 이달에 미리 받는다.

KT는 전국 유통 대리점과 협력사 지원에 총 1040억 원을 지원한다. 전국 대리점 1400여 곳에 정책지원금 80억 원을 지급하고 방역 키트와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용품 등을 제공한다. 대리점의 휴대전화 매입 대금 약 241억 원에 대한 결제기한을 늘려주고 대리점 운영 자금 목적으로 약 15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 협력업체 대상으로 총 440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과 물자대금을 이달에 앞당겨 지급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활용해 협력사의 대출 이자를 줄여줄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85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현재 운용 중인 800억 원의 동반성장 재원 중 500억 원 규모인 동반성장펀드를 75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최대 500억 원을 들여 중소 협력사의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대금 정산 날짜를 단축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전국 대리점 운영 등에는 100억 원을 지원한다.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 2000개 대리점의 매장 운영자금을 25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늘리고, 14억 원을 들여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제공한다.

이재훈 기자 yes@

아이러니.

강인하지만 우아하다
화려하지만 심플하다
거침없지만 편안하다

공존할 수 없던 모든 것이 허락된
단 하나의 SUV

Xperience More. XM3

www.XM3.co.kr에서 쉽게 구매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담하고 우아한 라인으로 완성된 프리미엄 디자인 SUV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직관적인 경험을 주는 운전자 중심의 하이테크 인터리어	다이나믹한 성능에 놀라운 연비까지 갖춘 르노그룹&다임러 터보 직분사 엔진
--	--	--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T-Ce 260 7단 EDC (16*) 복합연비 13.2km/l (도시 11.9km/l, 고속도로 15.3km/l), CO₂ 배출량 125 g/km, 3등급, 배기량 1332 cc, 공차중량 1345 kg · T-Ce 260 7단 EDC (17*) 복합연비 13.7km/l (도시 12.2km/l, 고속도로 16.1km/l), CO₂ 배출량 120 g/km, 3등급, 배기량 1332 cc, 공차중량 1330 kg · T-Ce 260 7단 EDC (16*) 복합연비 13.7km/l (도시 12.2km/l, 고속도로 16.1km/l), CO₂ 배출량 120 g/km, 3등급, 배기량 1332 cc, 공차중량 1330 kg · 1.6 GTe 무단변속기 (17*) 복합연비 13.4km/l (도시 12.1km/l, 고속도로 15.4km/l), CO₂ 배출량 123 g/km, 3등급, 배기량 1598 cc, 공차중량 1300 kg · 1.6 GTe 무단변속기 (16*) 복합연비 13.4km/l (도시 12.1km/l, 고속도로 15.4km/l), CO₂ 배출량 123 g/km, 3등급, 배기량 1598 cc, 공차중량 1300 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오토 스타트/스탑 적용 시(공회전 제한 장치) ※ 자세한 내용은 영업센터 (080-300-3000/02-300-3000)나 가까운 지점 및 홈페이지 (http://www.renaultsamsung.com)로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20 RENAULT SAMSUNG MOTORS

르노삼성자동차 SAMSUNG

확산세 주춤... '제2 신천지' 발생 가능성 촉각

신규 검사 인원·확진자 감소
당분간 증가 둔화 유지할 듯
“또 다른 증폭집단 나올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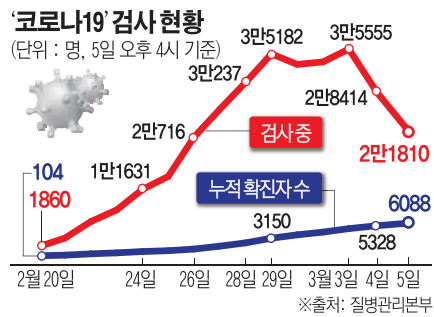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0시 기준으로 누계 진단검사 인원이 14만6541명으로 전날보다 9834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3일에는 신규 진단검사 인원이 1만6260명에 달했었다. 지난달 29일 909명이었던 신규 확진환자도 이날 438명까지 줄었다.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도들에 대한 검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인원은 3일 3만5555명에서 이날 2만1810명으로 감소했다. 검사 인원이 급증하지만 않는다면, 당분간은 확진환자 증가가 둔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현 상황이 확산세가 꺾이는 변곡점일 수 있지만, 신천지와 같은 또 다른 집단 감염을 앞둔 ‘폭풍전야’일 수도 있어서다.

권준욱 방대본 부분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브리핑에서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듯 보인다고 하더라도 중심 증폭집단의 모수가 (대구와 신천지에) 한정돼 (지금까진) 한정된 모수에서 환자를 찾아낸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문제는 그 집단에서 연결고리를 바깥으로 놓는 것으로, 그러면 그 다리를 타고 넘어간 바이러스가 또 다른 증폭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부산과 충남, 경북이 대표적인 사례다. 부산 온천교회에선 35명(부산 33명, 경남 2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충남 천안시에선 운동시설(쑤마댄스)을 중심으로 81명의 환자가 나왔다. 경북 경산시는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오전 11시까지 무려 347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신천



지 신도가 2·3차 감염자를 만들어내고, 그들이 다시 추가 전파를 일으키는 상황이다.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된 상황에서 대구 사례처럼 감염원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산발적인 지역사회 전파는 국외에서도 골칫거리다. 4일 세계보건기구(WHO)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감염 분류국가간 총 31개국이다. 발생지인 중국과 최근 환자가 급증한 한국, 이탈리아, 이란 외에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최근에는 중국 외 국가에서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팬데믹(대유행) 조정까지 보이고 있다.

5일 0시 기준으로 세계 코로나19 확진환자는 9만5024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외 환자만 무려 1만4615명이다. 특히 중국의 환자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한국(5766명), 이탈리아(3087명), 이란(2922명)에서 환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탈리아와 이란에선 사망자도 107명, 92명이나 나왔다. 프랑스(212명)와 독일(240명)도 환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미국도 위기다. 확진환자는 아직 142명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11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코로나19의 치명률(확진환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3.4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확진환자는 조만간 3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한 사람당 다섯 장만 팔아요” 5일 서울 종로5가 인근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올 수출 4조 감소... 2% 성장 어려울 듯”

UN·해위 IB·IMF 전망... “韓 감소액 세계 네 번째로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이 4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국제기구가 밝혔다. 해위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최근 잇달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고 있어 애초 전망한 2.4%는 물론 2%대 사수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4일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생산 둔화로 전 세계 수출이 59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수출은 네 번째로 많이 감소한 4조 원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004년 이후 최저치인 37.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봉쇄 정책을 펴면서 중국 내 제조 활동이 거의 중단된 영

향이다.

UNCTAD는 이러한 생산 감소는 중국에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제조 중간재 무역의 약 20%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과 세계 각국이 ‘가치 사슬’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 수출액이 500억 달러(약 59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이 156억 달러(약 18조 원), 미국이 58억 달러(약 7조 원), 일본이 52억 달러(약 6조 원), 한국이 38억 달러(약 4조 원) 순이다. 산업 분야별로는 정밀 기계와 기계, 자동차, 통신 장비 등이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코로나19의 세계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단기 성장전망이 저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JP모건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했다. JP모건은 지난달 초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낮춘 데 이어 한 달 만에 추가 하향한 것이다. 베어링자산운용도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올해 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전망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 2.4%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국내 경제 성장률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0.2%P(포인트) 정도 낮아지지 않겠느냐가 대체적 견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신천지 전수조사 주말쯤 마무리 확진환자 2000여 명 추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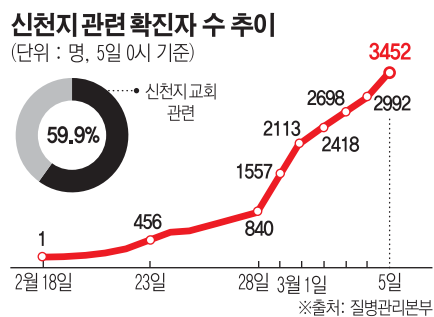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를 불러온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면 최대 약 2000명의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이를 기점으로 확진자 증가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또 다른 지역사회 전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60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에서만 5000명이 훌쩍 넘어지면서 두 지역의 확진자가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 확진자의 69.9%는 신천지와 관련된 사례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 9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주말까지 최대 200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조사 이후 확진자 수 증가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이후 하루 동안 확진자는 322명이 늘었지만 증가폭이 가장 컸던 지난달 29일이나 이달 3일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지난달 29일에는 813명, 이달 3일에는 85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당시 확진자의 대규모 증가는 신천지 대구교회 유증상 신도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한동안 일별 추세에서 환자가 많았던 이유는 신천지 검사 결과가 한꺼번에 계속 나오면서 500건, 600건 이렇게 환자가 증가했다”며 “신도들의 검사 결과가 많이 진행돼 전반적인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구 신천지 신도들의 증가세는 큰 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지역에서는 소규모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게는 수십 명씩 확진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충남에서는 쑤마댄스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8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이날도 경북 봉화에 있는 푸른요양원에서 36명의 확진환자가 추가됐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방대본도 이 같은 지역전파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히 생활밀집시설에서의 발생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어린이집 휴원 22일까지 연장... 맞벌이 보육 ‘비상’

당면교사 배치 ‘긴급보육’
가족돌봄휴가 적극 권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이달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장 미취학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보육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당면 교사를 배치해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시행하고,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

다”고 밝혔다.

정부는 휴원 기간 연장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당면 교사를 배치해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사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며 긴급보육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만일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이 있다면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히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가족돌봄휴가 사용도 적극 권장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 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 원씩 지원한다. 가령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 신청의 경우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불멘소리가 나온다. 자칫 회사에서 눈 밖에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나 중소기업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사업주들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朴 옥중편지’ 놓고 셈법 복잡해진 여야

與 “국정농단 세력 재구합”
정의당 “국기문란 행위” 비판
통합당 “환영…총선 승리 다짐”
범보수 대통합 논의 나설 듯
‘진보 진영 비례연합’도 탄력

보수진영을 향해 “힘을 합치자”고 촉구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계기로 진보·보수 대립이 가속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야는 5일 전날 공개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놓고 가파른 날을 세우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에 대해 “선거 개입”, “국정농단 세력의 재구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농단에 반성하기는커녕 국민 분열의 정치행동에 나선 것은 안타깝다”면서 “탄핵당한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선거 개입을 하는 행태도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박 전 대통령을 맹렬히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

회에서 “탄핵 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가문란 행위이자 촛불 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대표는 “더 참담한 것은 미래 통합당 지도부의 반응”이라며 “충성 경쟁은 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을 넘어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확실히 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 개입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므로 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면서 “옥중편지는 4·15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들을 당선되게 할 의사를 비교적 분명히 밝히고 있다. 통합당에 대한 지지·호소는 선거운동이며 박 전 대통령에게 금지된 행위”라고 했다.

통합당은 '통합당 중심으로 물쳐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환영하던 서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통합 완수를 다 집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편지를 거론하며 "역사적 터닝포인트가 돼야 할 총선을 40

여 일 앞두고 전해진 천금 같은 말씀”이라며 “오직 통합만이 승리로 가는 길이다. 미처 이루지 못한 통합의 남은 과제들을 끝까지 확실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40여 일 앞둔 보수 진영의 대통합 논의도 한층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보수 야권에는 자유한국당이 탄핵 주도 세력인 유승민계의 새로운보수당과 신철 합당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합당해서 만든 조원진·김문수 공동대표 체제의 자유공화당 등의 세력이 있다. 이에 '당 대당' 통합 논의를 진행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선거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계기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독식을 저지하기 위한 진보·개혁 진영의 비례대표 연대 구상도 추진력을 얻고 있다. 그간 군소정당의 불참 선언 속에 논의가 공전했다면, '보수 대 진보'의 대립 전선이 뚜렷해 질수록 진보진영의 연대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관측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알뜰교통카드, 광역시·경기도로 확대

대중교통비 최대 30% 절약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카드 사업을 모든 광역시(7개)와 경기도 전 지역(31개) 등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수송분
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역 등
대부분의 대도시권역이 대상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참여 지자체의 주민이
라면 누구나 대중교통 이용 시 알뜰가
드를 사용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종로, 서초, 강남 등 3개구만 가능하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건너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지난해 시범사업 분석 결과 이용자들이 월평균 1만 2246원(마일리지 7840원, 카드할인 4406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올해부터 협업카드사를 신한카드, 우리카드 2개사에서 하나 카드를 추가해 이용자들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

대광위는 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마일리지 적립과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인터넷은행법 무산... 심재철 與에 항의

심재철(왼쪽) 시계방향 첫 번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이인영(세 번
신태현 기자 holijak@

신태현 기자 holjjak@

中企와 일감 나눈 대기업에 인센티브

공정위 올해 업무계획... 플랫폼·OTT 등 생활분야 갑질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을 나눠준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생활밀착형 업종인 온라인 쇼핑·플랫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직구(직접구매) 등과 관련한 갑질과 독과점,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도 주력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을 목표로한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경제력 남용 근절을 위해 비계열 중소기업으로의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하고 이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으로 반영한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체 물류수수기업 인증(국토교통부), 소프트웨어(SW) 우수발주자 심사(과기정통부)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나누기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도다.

중소기업의 사업 기반을 잠식하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도 근절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수취, 계열사 지원행위를 시정하고, 의식주 분야 및 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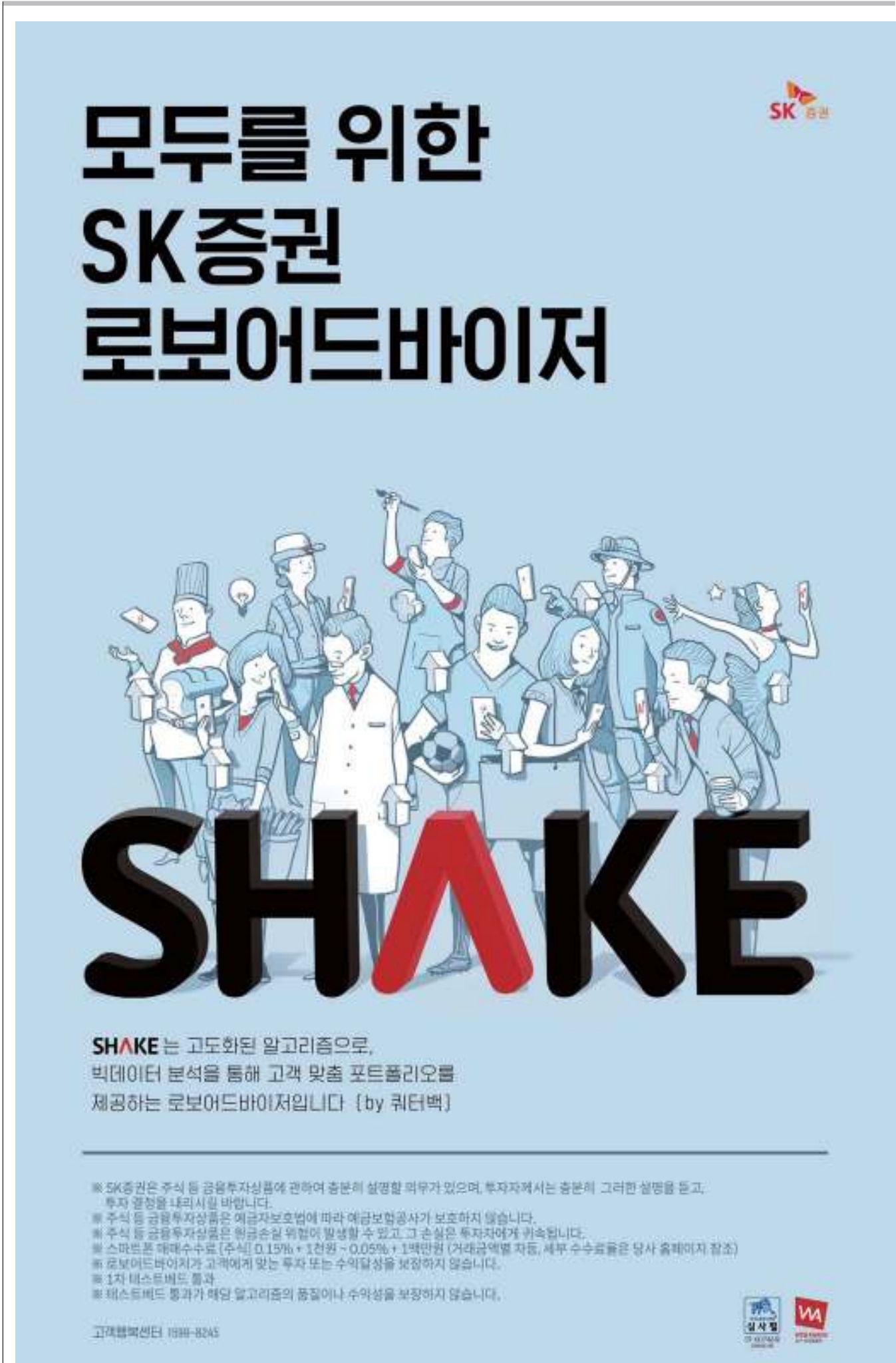
재 시장에서 중견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부당지원행위도 감시한다.

이와 함께 국제청의 과세정보 공유,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 감시 역량도 대폭 확충한다. 양질의 공시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의 범위안 예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제도도 전면 순직한다.

소액주주·기관투자자 등의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해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총수 2·3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요 영위업종 등 내부거래 현황 분석(10월), 지주회사 정보공개 항목에 부동산 임대료(10월), 경영연설텐 수수료(11월) 등을 정보공개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흥 시장이자 소비자과 밀접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부문에서의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하고,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 분야에서 오배송과 반쯤 등과 관련한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자율거래기준을 마련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프랑스 파리 패션위크 중 3일(현지시간) 열린 샤넬의 FW 2020/2021 컬렉션에서 모델들이 비르지니 비아르 수석 디자이너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파리/EPA연합뉴스

패션위크 연기·취소에 무관중 쇼·온라인 중계...

패션쇼 ‘코로나 쇼크’

글로벌 패션 산업의 메카인 이탈리아 밀라노와 프랑스 파리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쇼 흥행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패션 생태계가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마스크 쓴 들체앤가비나 패션쇼 관람객. 밀라노/EPA연합뉴스



밀라노 아르마니 매장 앞에서 마스크를 챙기는 패션업계 관계자들. 로이터연합뉴스

뉴욕·런던·밀라노·파리... 방문객 줄면서 중대 위기

중 명품매장 폐업 잇따라 매출 90%↓...생태계 위협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세계 패션의 본고장들은 다음 시즌을 주름잡을 패션쇼 선보이느라 매년 두 차례의 패션위크로 분주해진다. 미국 뉴욕에서 영국 런던, 밀라노, 파리로 이어지는 패션위크 기간이면 패션업계의 내로라하는 유명 인사들이 출몰한다. 인플루언서에서부터 명품 바이어들까지 장사진을 이룬다.

그러나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파리 패션위크는 방문객이 줄면서 쇼가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패션위크 시작 당일만 해도 프랑스의 코로나19 감염자는 14명에 불과했으나 5일 만에 200명을 넘어서면서 비상이 걸렸다. 프랑스 정부는 급기야 5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했다. 이에 유명 바이어들과 패션잡지 편집자들은 쇼가 끝나기도 전에 파리를 일찌감치 떠났다. 일부는 아예 오지도 않았다. 2월 27일 파리에서 열린 이자벨마랑 패션쇼에서는 관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관람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 밀라노 패션위크에서도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밀라노가 있는 롬바르디아주가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지가 되면서 ‘레드존’으로 지정, 밀라노 패션위크는 정해진 일정을 이틀 남기고 패션쇼가 모두 취소됐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무관중 쇼로 전환, 관람객 없는 쓸쓸한 극장에서 패션쇼를 열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고, 이외에 예정된 패

션쇼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미국의 대표 브랜드인 랄프로렌은 4월로 예정된 단독 패션쇼를 취소했다. 구찌도 5월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1 크루즈 컬렉션’ 패션쇼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크루즈 컬렉션은 정규 컬렉션 외에 간절기에 입을 만한 옷을 선보이는 행사다. 주로 호주·미국·아시아 등에서 패션쇼가 열린다. 프라다 역시 5월 21일 일본 도쿄 크루즈 쇼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샤넬은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 계획이던 2019/2020 공방(메티에다르) 컬렉션을 취소했다.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이

었던 도쿄 라쿠텐 패션위크 2020 가을 행사도 취소됐다. 3월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2020 F/W 상하이 패션위크는 연기됐다.

글로벌 패션쇼의 잇단 취소로 패션업계의 ‘밭줄’이 위협받게 됐다. 명품 기업들은 물론 패션쇼 이벤트 대행업체, 패션잡지들이 모두 영향권에 든다.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일 장(場)을 잃게 됐다.

지난해 글로벌 명품업체의 전체 매출은 3050억 달러(약 361조3000억 원)였고, 이 가운데 중국인이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중국에서 명품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매출의 9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제한 조치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 명품업체 본고장으로의 중국 관광객도 감소해 패션업계가 ‘개점휴업’에 놓였다.

파스칼 모란트 파리 패션위크 조직 위원장은 “패션쇼의 빈자리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공급망이 망가진 게 문제이고, 얼마나 지속될 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또 다른 문제”라고 우려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중앙銀 ‘빅스텝’ 잇따라...부채위기 경고음 커졌다

코로나 충격에 경제적 돈풀기 나서
캐나다도 기준금리 0.5%P 인하
글로벌 증시는 널뛰기 장세 이어가

작년 3Q 세계 GDP比 부채율 322%
美 10년 국채금리 첫 1% 밑돌아

증시가 극심한 등락을 반복하는 볼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자들이 작은 재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희일비가 연출되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런 혼란을 진정시키고자 돈 풀기 경쟁 조짐을 보이면서 새로운 부채위기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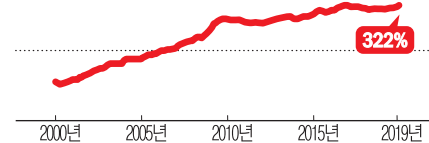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1173.45포인트(4.5%) 폭등했다. 전날엔 8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었다.

최근 들어 이 같은 널뛰기가 반복되고 있다. 다우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에 지난주 총 3580포인트가량 밀려났다. 2일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1293.96포인트 치솟았다가 정작 금리 인하가 단행된 3일엔 오히려 785.91포인트 하락했다. 장중 등락 폭은 무려 1300포인트에 달했다.

4일 급등은 ‘바이트 효과’로 분석된다. 중도 성향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날 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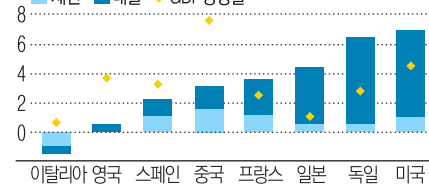
글로벌 GDP 대비 부채 비율

※ 출처: FT



주요국 비금융권 기업 부채 변화

(단위: %, 2018년 1분기~2019년 1분기)



‘슈퍼 화요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정치적 안도감에 투자자들이 환호했다. 월가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급진 진보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밀려나 안도 랠리가 펼쳐진 것이다.

미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의 3배인 83억 달러(약 9조8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

주요국 공조 지원도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다. 연준의 0.5%포인트 파격 금리 인하에 이어 캐나다중앙은행(BOC)도 이날 같은 폭의 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BOC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0.5%포인트 내렸다. 이에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도 잇따라 증시 부양에 나설 것이라 전망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증시의 급등락 자체보다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일 큰 폭의 널뛰기를 되풀이할 정도로 투자심리가 취약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FT는 “코로나 충격이 세계 부채 위기의 불을 지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322%를 기록했고, 총 부채는 253조 달러에 달했다.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조금의 빠격 거림에도 부채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빅 스텝’이 이 같은 글로벌 부채 위기의 취약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준이 파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선 이후 미국 장기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졌다. 증시가 올라도 투자자들이 계속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다.

금리 하락에 회사채 시장도 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에만 미국과 유럽에서 12개 이상의 기업이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금리 인하가 기업의 차입 비용을 낮춰줘 고위험도 무릅쓰는 모양새다.

오토마 이싱 유럽중앙은행(ECB)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저금리의 장기화는 자본의 심각한 오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좀비’ 은행 양산과 기업의 생명을 겨우 연명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IMF·WB 수장도 팔꿈치 인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왼쪽)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기록한 2.9%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中, 유엔 지재권 수장 선거서 美에 ‘무릎’ “한번 충전에 643km 주행”

GM, 대용량 전기차 배터리 발표

WIPO 사무총장 싱가포르 출신 당선

중국이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사실상 미국에 패했다. 그동안 중국과 미국은 무역 전쟁의 연장선으로 WIPO 차기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는데, 최종 투표에서 미국 등 서방국이 추천한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치러진 WIPO 사무총장 선거에서 다녜 탕<사진> 싱가포르 특허청장이 당선됐다. 탕 후보는 이날 열린 조정위원회 2차 투표에서 55표를 획득, 28표를 얻는 데 그친 중국 출신 왕빈잉 현 WIPO 사무차장을 눌렀다.

WIPO는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26개 국제 조항을 관장하는 기구로 192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임기 6년의 WIPO 사무총장 선출은 회원국 중 83개국으로 구성된 WIPO 조정위원회 투표로 결정된다. 탕 내정자는 5월 총회에서 정식 승인을 거쳐



10월부터 임기에 들어간다.

WIPO는 지식재산권 문제가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면서 몇 년 사이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특히 미·중 간 갈등이 WIPO의 존재감 부상에 큰 역할을 했다. 미·중은 지난 1월 15일 무역 전쟁의 휴전 협정이라 할 ‘1단계 미·중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이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협상에서는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는데, 그중 하나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였다.

이런 가운데 세계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WIPO의 수장에 중국인이 취임하는 것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중국은 이미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산업개발기구(ID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4개 기구의 수장을 배출했고, WIPO로 다섯 번째 포스트를 노리고 있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전 세계 전기자동차 업체를 선도하는 테슬라에 대항할 강력하면서도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다.

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GM은 이날 한 번 충전으로 400마일(약 643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를 발표했다.

GM은 이날 자사가 전기차의 미래를 포용하는 데 있어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강조하고자 12가지 제품을 선보였다. 또 한 번 충전에 400마일 이상을 주행하는 GM의 새 배터리는 테슬라보다 약간 더 긴 것이다. 테슬라의 ‘모델 S’ 세단 중 롱레인지(Long Range) 최신 버전의 주행거리는 390마일이다.

GM은 “새로운 배터리가 부드럽고 평평한 파우치 스타일로 돼 있어서 책꽂이처럼 배터리 셀을 가로로 정렬하거나 수직으로 쌓는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Hope. Together.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신한이 여러분과 함께 소셜 기부 프로젝트
‘Hope Together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함께 극복해 온 저력이 있기에,

오늘의 위기를 넘어
더욱 건강해질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신한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셜 기부 프로젝트 ‘Hope Together 캠페인’ 참여 방법은 신한금융희망재단 홈페이지/페이스북 또는 와디즈(www.wadiz.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조성된 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등 의료진, 소외계층 아동,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케뱅 정상화’ 국회에 발목… 자금 수혈 ‘플랜B’ 시동

‘인뱅법’ 국회 통과 실패
법사위 넘었지만 본회의서 부결
5900억 유상증자 계획 ‘물거품’
KT 계열사로 대주주 교체 유력
우회증자로 자금난 해결책 마련

국내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개점휴점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KT를 통한 자본확충이 물거품이 되면서 복잡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 특별법(인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이 개정안이 부결됐다. 전날 인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통상 법사위를 넘기면 본회의도 쉽게 통과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생당 일부에서 반대표가 나오면서 개정안 통과가 좌절됐다. 그동안 인뱅법 개정안을 반대하던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합세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법사위 중간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KT를 위한 특혜”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인뱅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

케이뱅크 개점휴업 장기화

2017년	4월	국내 제1호 인터넷은행 출범
	3월	KT, 대주주 신청했으나 공정법 위반으로 심사 중단
	4월	KT, 5900억원 규모 증자 불발, 무기한 연기
	직장인·K 신용대출 등 일부 대출 판매 중단	
2019년	6월	가계신용대출 등 판매 중단
	12월	쇼핑머니대출 중단
2020년	2월	예적금담보대출 외 모든 대출 영업중단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2월 26일	인뱅법 개정안 심사 3월로 연기
	3월 4일	국회 법사위 인뱅법 개정안 통과
	3월 5일	국회 본회의 인뱅법 개정안 부결
KT를 통한 유증 불발 → 자회사 통한 우회증자로 선회		

케이뱅크 현황 (2019년 3분기 기준)

자본금	5051억
가입자 수	120만명
여신잔액(원)	1조4320억
수신잔액(원)	2조2800억
임직원 수(명)	363명
누적손실액(원)	635억

다. 기업이 공정거래법(공정법)을 위반했다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KT는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를 수 없게 됐다.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5년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케이뱅크는 인뱅법이 통과되면 2대 주주인 KT의 지분율(현재 10%)을 34%까지 늘려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었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케이뱅크는 1년 동안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식물인뱅이라는 오명을 썼다. 대출 중단으로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635억 원까지 늘어났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사위를 넘어간 법안이 본회의에서 좌절됐기 때문에 너

무 당혹스럽다”면서 “케이뱅크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 지주사와 협의해 증자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다소 복잡한 플랜B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를 교체하고 계열사를 통해 우회 증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KT 대신 대주주 역할을 할 계열사로 는 비씨(BC)카드가 꼽히고 있다. BC 카드는 KT가 지분 69.54%를 보유하고 있다.

비씨카드 외에도 KT에스테이트, KT 디에스 등도 유력한 후보군이다. 부동산 개발·투자회사 KT에스테이트는 100% KT 소유 계열사다. KT에스테이트 자본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3912억 원 수준이다.

김병근 기자 nova@

9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금소법’

“가상 자산거래 투명성 강화 기대”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 이후 9년 만에 금소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 앞으로 소비자 권익신장과 금융사 국민신뢰 제고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금소법을 가결했다. 재석 180명 중 178명이 찬성했고 2명은 기권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금융상품자문업 관

련 사항은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금소법 최종 가결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총 11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었다.

금소법 통과로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받게 됐다. 또 금융사의 분쟁조정 이 탈 금지 등 사후구제 권리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사는 6대 판매규제와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 통제안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 금융사 사후제제 수준은 기존 최대 5000만 원 과태료에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위반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으로 내도록 강화됐다.

금융위는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위 규정 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dragon@

‘라임 불똥’ 튜 기업은행 윤종원 실무능력 시험대

금융 인사이드

**비이자수익 감축 추세에도
윤 행장, 국책銀 방향 못 잡아**

**내부직원, KPI 항목 폐지 등
사후대책 수립 성명서 발표**



IBK기업은행이 라임사태 이후 사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라임펀드 상품을 600억 원가량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국책은행의 부실한 상품 관리와 검증 능력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취임 2달째를 맞는 윤종원 행장의 실무능력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내부에서는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를 편입한 상품을 600억 원가량 판매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진의 사후 결과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성명서에는 윤 행장이 취임 당시 직원들에게 약속한 ‘금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이자수익 감축 및 경영평가 개선 방안 강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이자수익은 이자를 제외한 수수료 수익을 말하는데, 펀드 및 신탁 수수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은행이 비이자수익 목표를 낮추고 직원들을 평가하는 핵심성과지표(KPI)에서 비이자수익 지표를 폐지하면, 불안전판매를 수반하는 과도한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모범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국책은행은 불안전판매에 있어서 감독과 관리를 일관 시중은행보다

더욱 엄격히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 했다”면서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직원들의 과도한 영업을 막아 고객 수익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과 달리 타 시중은행은 올해부터 KPI에서 비이자수익 지표를 전면 폐지하거나 해당 지표의 비중을 대폭 감소하는 등 선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가 연달아 터지면서, 직원들의 영업 부담을 줄이고 고객중심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의도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은 모두 올해 KPI에서 비이자수익 항목을 폐지했다. 농협은행은 1000점 만점인 KPI 점수에서 비이자수익 항목 점수를 150점에서 80점으로 대폭 줄였다.

윤 행장도 타 시중은행처럼 취임 이후 기업은행의 라임사태 해결을 업무 1순위에 둘 것이라는 주변의 예상과 달리, 국책은행으로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내부 직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 은행 공동 대응반에 적극 참여하는 등 라임사태로 인한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KPI개편과 관련해서는 비이자수익 목표 감축이 아닌 불안전판매 우려가 큰 항목들에 대한 경영 평가 지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씨티·산업銀, 1차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차 권고안(4개 기업)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기업에 대한 권고안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마련한 1차 키코 분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도 법무법인 외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신한·산업·우리·한국씨티·하나·대구는 행 등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안

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중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각각 6억 원, 28억 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씨티은행 측은 과거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회생절차 과정에서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 채권을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측은 추가 권고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4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키코 판매 은행 가운데 분쟁조정안을 받

아들이기로 한 곳은 현재까지 우리은행 1 곳뿐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신한은행은 금감원이 수락 여부 시한으로 정한 6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조정 결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6일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기업들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를 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피해를 봤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박진산 기자 jinsan@

은행 이자익, 2년 연속 40兆 돌파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이 2년 연속 40조 원을 넘어섰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40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0.6%) 늘었다. 같은 기간 예대금리차 축소로 순이자마진(NIM)이 0.11%포인트 하락했지만,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6.5% 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

비이자 이익 역시 6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원(18.8%) 급증했다.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매매이익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8000억 원 증가한 덕이다. 수수료와 신탁 관련 이익도 불었다.

다만 전체 당기순이익은 비용증가와 영업외손실로 인해 14조4000억 원에 머물며

1년 전보다 1조2000억 원(7.7%) 줄었다.

구체적으로 판매·관리비는 IFRS16(신리스 기준) 적용으로 감가상각비가 늘면서 8000억 원(3.6%) 증가한 23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대손 비용은 4조4000억 원으로 2조8000억 원(39.5%) 급감했다. 2018년보다 신규 부실이 줄었고 부실채권을 정리한 덕이다. 영업 외 손익은 자회사 투자지분 손실로 5000억 원 적자 전환했다. 법인세 비용은 5조 원으로 47억 원(1.5%) 줄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총자산 순이익률(ROA)은 0.54%,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6.98%로 전년 대비 각각 0.09%포인트, 1.05%포인트 하락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비정형〉

삼성, SW로 ‘10배속 데이터 액세스’ 혁신

미국 자회사 ‘스텔루스’ 초격차 저장 플랫폼 공개

웹문서·이메일·SNS 등 소셜 데이터 처리 특화 4세대 SSD도 내놔…북미 OTT 서버 증설 공략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초격차 기술력을 이어가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자회사인 미국 ‘스텔루스 테크놀로지(Stellus Technologies)’는 최근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을 선보였다.

스텔루스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가 2015년 12월 100% 자회사로 미국 현지에 설립한 차세대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이번에 선보인 ‘스텔루스 데이터 플랫폼’은 전 세계 비정형 데이터의 저장 및 액세스 속도를 10배까지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

비정형 데이터는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를 말한다.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의 확산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잘 정리된 데이터가 아닌 웹 문서, 이메일, 소셜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플랫폼은 또 클라우드, 코어 및 에지

인프라를 활용해 디지털 기업의 대규모 데이터 처리량을 지원한다. 특히 삼성전자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나 다른 스토리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준다.

손영권 삼성전자 최고전략책임자(CSO) 사장 겸 스텔루스 회장은 “데이터 생성이 폭발적 속도로 늘면서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 비정형 빅데이터를 대규모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텔루스의 혁신적 시스템 도입은 삼성이 만든 업계 최고의 메모리와 스토리지의 완전한 성능을 발휘하고, 고객과 파트너에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사는 그동안 하드웨어 못

지않게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 왔다.

지난해에는 소프트웨어 혁신기술 3개를 적용한 4세대 SSD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로 이들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낸드 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버다이(Never Die) SSD FIP(Fail-in-Place)’를 비롯해 가상의 맞춤형 독립 공간을 제공하는 ‘SSD 가상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V낸드 머신러닝’ 등이다. 이 가운데 FIP 기술은 기존의 서버·데이터센터용 초고용량 SSD가 내부의 수백 개 낸드 칩 가운데 하나만 오작동해도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낸드 칩의 오류를 감지하는 기술, 손상

된 데이터를 검사하는 기술, 원본 데이터를 정상 칩에 재배치하는 기술 등을 통해 이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오류처리 알고리즘’을 가동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반도체 불황에 허덕였던 삼성전자는 올해 데이터 센터 성장에 따른 서버 스토리지 시장 공략을 통해 반등하겠다는 각오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북미 IDC 업체들의 신규 서버 증설 수요는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등 OTT 서비스 확대에 따른 서버 증설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서버 반도체 시장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SK, 기존 계열사 사명 ‘딥체인지’ 걸림돌로 봐

SK·GS 계열사 사명 변경 등기 신청 현황		
기존	변경	본등기 기간
SK		
SK건설	SK크리에이트	4월 18일
	SK디멘션	4월 18일
	SK넥스트빌드	4월 18일
	SK넥스트림	6월 2일
	SK뉴엔	6월 2일
	SK앤서	6월 2일
	SK엔솔브	6월 2일
	SK엔포트	6월 11일
	SK컨티뉴	6월 11일
	SK퓨로	6월 11일
SK E&S	SK프로브	6월 11일
	SK센트라	6월 22일
	SK루브리칸츠	8월 21일
	SK커넥티브	8월 21일
	SK퍼스트웨이브	8월 21일
	SK넥스트모션	8월 23일
	SK엔무브	8월 21일
	SK웨이즈	8월 21일
	SK프로니어	8월 21일
	SK엔스파이어	8월 21일
SK에너지	SK엘리멘탈	8월 21일
	SK컨버전트	8월 21일
SK종합화학	SK휴모스트	8월 21일
	SK에코러스	8월 21일
GS		
GS건설	GS인더스트리얼솔루션	8월 16일
	GS플랫폼	8월 16일
	GS인더스트리	8월 16일
	GS엔터프라이즈	8월 16일
	GS디벨로프먼트	8월 16일

※ 출처: 법원 등기소

SK, 신사업 혁신 입힌 새 사명 추진

▶1면서 계속

최태원 “자랑스러웠던 이름 환경파괴 기업 여겨질수도”

GS건설, 글로벌 신사업 준비 허윤홍 사장, 스마트팜 진출 속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존 사명의 한계를 지적해왔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특정 업종에 얽매인 사명으로는 ‘딥 체인지’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미래 산업 생태계를 보면 통신 기업이 콘텐츠 사업을 하고 화학 기업이 배터리를 만드는 등 사업부문이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기존 사명으로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임직원과의 행복

토크에서 “과거엔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가치와 맞지 않을 수 있고 환경에 피해를 주는 기업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며 사명 변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GS건설은 지난달 17일 △GS인더스트리얼솔루션 △GS플랫폼 △GS인더스트리 △GS엔터프라이즈 △GS디벨로프먼트 등 5개의 사명을 임시등록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신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변화에 앞서 준비를 하는 차원”이라며 “여러 안 중의 하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GS그룹 차원에서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사장은 지난해 신사업추진 실장으로서 스마트팜 사업 진출을 진두지휘했다. 신사업부문 사장으로 승진한 직후 인도 태양광발전소 개발 사업에 진출했다.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 모틀러 업체 3곳을 동시에 인수하며 글로벌 주택건축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르노삼성 XM3 “올 4만대 목표”

사전 계약만 6000대

르노삼성차는 5일 서울웨이브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미디어 공개 행사에서 “XM3는 SUV와 세단의 장점을 모두 갖춘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디자인 SUV”라며 “연내 4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병욱 르노삼성차 상품마케팅 담당은 이날 “XM3 사전계약 대수가 6000대를 넘어섰다”며 “사전계약자의 76%는 남성”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차가 3일 영업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발표한 사전계약 대수가 5500대인 점을 고려하면, 4일 하루에만 500대 넘는 계약이 이뤄진 셈이다.

하이브리드 등 파워트레인 다변화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XM3는 르노그룹과 다임러가 개발한 신형 4기통 1.3리터 터보 엔진 TCe260과 1.6리터 등 두 가지 다운사이징 엔진을 얹었다. TCe260 엔진은 최고출력 152마력, 최대토크 26.0kg·m의 힘을 내고 1리터당 복합연비는 동급 최고인 13.7km를 이뤄냈다.

유창욱 기자 woogi@



제네시스 ‘G80’ 7년 만에 3세대 디자인 공개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3세대 ‘G80(지에이티)’ 디자인을 5일 공개했다. G80은 2008년 1세대, 2013년 2세대 모델이 나왔다. 제네시스의 대표 디자인 요인인 크레스트 그릴(방패를 연상시키는 모양 그릴)과 두 줄 쿼드램프(램프 네 개)가 최근 출시된 스포츠유틸리티 차(SUV) GV80에 이어 G80에도 적용됐다.

사진제공 현대차

삼성전자, 뉴질랜드 5G망 깎다 현지 최대 이동사에 장비 첫 공급

“5G시장 확대 중요한 발걸음”

삼성전자가 뉴질랜드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스파크(Spark)와 5G 이동통신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뉴질랜드에 이동통신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파크와 협력해 연내 일부 지역에 5G 상용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상용화한 3.5GHz 주파수 대역 5G 기지국(Massive MIMO) 등 통신장비를 공급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축적한 기술과 대규모 상용망 구축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 최적화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스파크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단말, 핵심 칩 등 엔드-투-엔드 솔루션(End-to-End Solution

)에 대한 성능 검증을 통해, 삼성전자 장비의 빠른 속도와 품질, 초저지연 성능 등 실증 시험을 진행해왔다.

스파크 구매부문장 라제쉬 상은 “삼성전자는 수년간의 5G 상용화 경험뿐 아니라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가입자들에게 실감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며 “삼성전자 통신장비를 활용해 안정적 통신 품질,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5G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네트워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김우준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뉴질랜드에서의 첫 번째 이동통신사업 수주로, 앞으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5G를 더욱 확대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스파크와 함께 차세대 통신기술을 활용한 5G 서비스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重, 아람코 해양플랜트 사업 자격 획득

지난달 장기공급계약 MOU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하는 해양플랜트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4~25일 사우디 담맘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아람코와 장기공급계약(LTA)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현대중공업은 아람코가 소유한 해상 유전·가스전 관련 각종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 업계에서는 아람코가 올해부터

6년간 100개 이상의 해양 유전·가스전 고정식 플랫폼 설비 관련 공사를 발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6년간 매년 30억 달러(약 3조 5500억 원) 이상의 해양플랜트 관련 발주가 이어져, 총 200억 달러(약 23조 66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주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 계약으로 향후 수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LG ‘스팀 씽큐’ 건조기 사면 공청기 증정

LG전자는 5일 트롬 건조기 스팀 씽큐(STEAM ThinQ)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신제품에 특허받은 트루스팀(TrueSteam)을 3가지 특화코스(스팀 리프레스·침구털기·패딩 리프레스)에 적용했다. 100도(℃)의 트루스팀은 탈취와 살균은 물론 의류의 주름도 완화해준

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204만~224만 원이다.

LG전자는 이달 31일까지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모두에게 퓨리케어 공기정정기(모델명 AS111WEW)를 증정한다. 제조사와 관계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건조기를 반납하면 모바일 상품권 20만 원을 제공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윤활유 키우는 오일뱅크, 현대루브리컨츠 상표 등록

정유 수익성 악화 속 ‘캐시카우’ 비정유 강화
전기차 윤활유 급성장 기대…“분사 계획 없어”

현대오일뱅크가 ‘현대루브리컨츠 주식회사’라는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루브리컨트(Lubricant)가 윤활유를 뜻한다는 점에서 현대루브리컨츠는 윤활유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로 추정된다.

이는 현대오일뱅크가 글로벌 석유 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 정유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비(非)정유 사업인 윤활유 사업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대오일뱅크는 정유 사업에 편중된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는 중이나, 아직 현대루브리컨츠를 사명으로 한 윤활유 사업 분사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5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12월 17일 ‘현대루브리컨츠 주식회사’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 상표권은 내연기관용 연료 첨가제, 공업용 윤활유 등에 관한 것으로 설명돼 있다.

윤활유는 고도화 공정에서 남는 기름(잔사유)을 재처리해 만든 윤활기유에 각종 첨가제를 혼합해 생산하는 제품이다. 터빈유, 기어유 등의 종류가 있지만, 자동차용 엔진오일(가솔린,디젤용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윤활유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것은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석유사업과는 달리 윤활유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 강화 방안 중 분사까지 고려해 상표권을 선제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급 윤활유를 중심으로 성장 중인 윤활유 사업은 최근 국내 정유사들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로 자리 잡고 있다. 석유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정유 사업의 실적이 고꾸라지고 있지만, 비정유 사업인 윤활유 사업이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며 하락한 실적을 상쇄하고 있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사업 자회사 SK루브리컨츠를 통해, 에스오일(S-Oil)은 프랑스 석유회사인 토탈과 합작한 ‘에스오일토탈윤활유’를 설립해 윤활유 사업을 진행 중이다. GS칼텍스는 윤활유 사업부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윤활유 부문 영업이익률 9.8%), GS칼텍스(8.3%), 에스오일(14.5%) 등 정유사 대부분이 1%대 혹은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거둔 정유 부문보다 윤활유 사업에서 월등하게 높은 이익을 거두고 있다.

윤활유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기차 시장의 급 성장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전기차용 윤활유 시장 역시 올해 1000만 리터에서 2025년 6000만 리터로 6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다른 정유사들이 윤활유 사업의 선전에 힘입어 수익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오일뱅크 역시 윤활유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4년 글로벌 에너지 기업 셸(SHELL)과 합작해 ‘현대셸베이스오일’을 설립하고

윤활기유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상표권 등록 시점이 사우디의 아랍코가 2대 주주로 올라선 직후여서 향후 현대오일뱅크가 집중하려는 사업 전략의 방향이 나타난 것이라는 업계의 평가도 있

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윤활유 사업의 분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등록했다는 설명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화그룹이 코로나 치료센터로 제공하는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삼성·LG 이어 한화·DB그룹도 “코로나 치료센터로 사용하세요”

연수원 등 회사시설 제공
보호장구·생필품 지원도

재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겨내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삼성과 LG가 대구·경북지역에 기숙사와 연수원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 데 이어 한화와 DB그룹은 경기도 지역의 연수원과 인재개발원을 확진자나 격리대상자를 위해 활용하도록 결정했다. 삼성이 의료진을 대구·경북에 급파했고 LG는 그룹 차원에서 각종 보호장구와 생필품 등을 긴급 지원한다.

한화그룹은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이 부족하자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한화생명 라이프파크(Life Park) 연수원을 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삼성, LG에 이어 10대 그룹 가운데 세 번째로 회사 연수시설을 코로나19 환자들의 격리치료를 위해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경북 외 지역에서 민간 연수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화가 처음이다.

한화가 개방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한화생명 라이프파크는 지난해 4월 개원한 스마트 연수시설이다. 대지면적 8만2000㎡, 연면적은 3만㎡에 달한다. 2곳의 숙소동에 20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생명 라이프파크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교적 경증환자들이 격리된 상태에서 의료진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료센터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 수원 등 대형병원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도 장점이다.

DB그룹도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자체의 치료시설 확보를 돕기 위해 그룹 인재개발원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DB그룹 인재개발원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8만㎡(건축면적 1만5000㎡)의 면적에 최대 3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0실 규모의 숙소 및 연수시설을 갖췄다.

LG그룹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의료진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가장 필요한 방호복 등 보호장구, 생필품, 건강관리 가전제품, 업무 연락용 휴대폰 등을 긴급히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550실 규모의 경북 구미의 직원 기숙사와 울진의 연수원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기로 한 데 이은 조치다.

구체적으로 LG는 의료용 방호복 1만 벌과 방호용 고글 2000개, 의료용 마스크 10만 장을 대구·경북 지역 의료진에게 지원한다. 이번 지원되는 보호장구는 LG 계열사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해 긴급히 확보한 것이다. LG생활건강은 현장 의료진의 불편을 덜어줄 소용량 생수와 휴대용 세면도구, 소독제품을 3월 한 달간 매주 공급기로 했다. LG전자는 건조기와 공기청정기 등 건강관리 가전제품 지원에 나섰다. 건조기는 잦은 세탁이 필요한 의료가운이나 수술복을 빨리 건조시켜 착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 LG유플러스는 의료진의 긴급 업무 연락 및 환자 상담용 휴대폰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대구시 등을 통해 임대폰 100대 및 통신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대한항공, 37.5도 이상 승객 탑승 거부

대한항공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여행 우려 확산을 감안해, 인천발 전 노선 항공편 승객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탑승구 앞에서 열화상카메라 및 휴대용 체온계로 모든 탑승 승객의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증상 중 하나인 37.5도 이상 체온 승객이 발견될 경우 탑승을 거부할 계획이

다. 대한항공은 이번 인천발 전 노선 항공편에 대한 승객 발열 체크를 위해 총 8대의 열화상카메라를 확보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제거에 가장 효과적 제품인 MD-125 약품을 이용해 인천발 미주행 전편, 중국발 인천행 전편의 기내 전체를 인천공항에서 분무소독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붉은 대게살과 소스의 황금비율 몬스터크랩 바디



진~한
대게딱지장에
비벼! 비벼!

매콤한
초고추장에
비벼! 비벼!

한성기업 HANSUNG
ENTERPRISE

“크라미”와 “Crami”, “몬스터크랩”과 “Monster Crab”은 한성기업(주)의 등록상표입니다.
©2019. HANSUNG Enterprise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어떤 은행이라도
KB스타뱅킹으로
한번에

오픈뱅킹도 KB스타뱅킹



KB스타뱅킹으로 간편하게
은행이 달라도 출금, 이체, 상품가입까지 한 번에



KB스타뱅킹으로 한눈에
은행이 달라도 잔액, 거래내역까지 한눈에



KB스타뱅킹으로 수수료 없이
다른 은행 간 이체 수수료 무료

*오픈뱅킹은 KB국민은행을 포함하여 총 18개 은행이 참여하는 편리한 금융서비스이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 한도는 오픈뱅킹 전 기관 합산 1일 1천만원입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점 직원, 스마트 상담부(1588-9999)로 문의 또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080호(2020.01.22), 광고물 유효기한 2020.12.31까지

KB 국민은행

투자 ↑ 요금 ↓... 이통3사 ‘코로나 극복’ 힘 보탠다

최기영-이통수장 화상 간담회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올해 5G 투자를 4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 대리점에 125억 원의 운영자금을 투입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통3사 대표와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면 접촉 최소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통 3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등 상반기 투자를 확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동시에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유통점에도 운영자금 등을 지원키로 뜻을 모았다.

통신사는 상반기에 장비·단말 조달 등을 비롯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사업을 발주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된다. 이 때문에 올해의 경우 상반기 투자 규모는 당초 약 2조7000억 원(잠정)으로 계획됐다.

최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통신사들은

올 5G투자, 당초 계획보다 50% 늘린 4조 원으로 확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추진
전국 대리점에 운영자금 지원, 판매 목표량도 하향조정

통신망 투자가 ICT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50% 증가한 4조 원 수준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G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지하철, 철도, 대규모 점포(백화점, 쇼핑몰 등),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최대한 빨리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통 3사는 이동전화 가입 등이 감소하며 매출이 급감한 중소 유통점에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운영자금 지원 외 단말

기 외상 구입에 대한 채권 연장(이자 유예), 판매 목표량 하향조정 등이 포함된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리점 등에 운영자금을 총 125억 원 지원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별 내부상황을 고려해 단말기 유통망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외상 구입에 대한 이자 상황 등을 유예 조치한다. 특히 대구·경북 등 피해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판매 목표량은 내리되 장려금 수준은 유지해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 및 위생물품도 계속 지원한다.

최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 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때 통신망 투자 조기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통 3사와 긴밀하게 공조해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 CNS 사내벤처 ‘햄프킹’ AI 통관 전문기업으로 분사

“자동화 기술로 컨테이너 1개 처리 5시간→5분”

LG CNS는 사내벤처 ‘햄프킹’을 RPA(로봇업무자동화)·인공지능(AI) 전문 기업으로 분사(스핀오프)했다고 5일 밝혔다.

RPA·AI 수입 통관 자동화 기술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1개 물량 기준으로 통관 처리 시간을 5시간에서 5분으로 줄여준다. 전 세계 각지에서 접수되는 인보이스(송장·거래물품명세서)정보를 읽어 들어 관세 시스템에 입력하고,관세 비용 산정까지 모두 RPA, AI가 처리한다.

햄프킹은 2018년 말 LG CNS 사내벤처 대회 ‘아이디어 몬스터’를 통해 선발됐다. 1년 3개월간 충분히 성장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해 분사를 결정했다.

햄프킹은 LG CNS 입사 동기이자 1983년생 동갑내기 2명의 도전정신으로 일궈낸 창업 성공 사례다.

햄프킹 김승현 대표와 양자성 CTO는 LG CNS에서 AI 개발자로 일하다 새로운 분야인 RPA에 도전, 사내벤처를 설립했다. 설립 3개월 만에 RPA 솔루션 개발에 성공하고, 6개월 만에 관세법인과의 사업화에 나섰다. LG CNS는 햄프킹이 외부 스타트업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최

소화하기 위해, 사내 개발자 지원,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 부여, 사무공간 제공 등 약 9억 원을 투자하며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분사 후에도 지원을 계속한다. LG CNS는 약 5억 원의 자본 투자를 진행하며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내 스타트업 입주 공간에 새 등지를 틀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업화에 성공한 관세법인 통관 자동화 프로젝트는 햄프킹이 주도한다. 통관 이외 RPA 사업 추진 시 LG CNS와 공동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과 벤처가 동반 성장에 나선다.

LG CNS는 2016년부터 사내벤처 선발 제도인 ‘아이디어 몬스터’를 운영 중이다. 연 2회 정기 공모전과 수시 아이디어 접수를 통해 사내벤처를 선발한다.

김승현 LG CNS CTO 전무는 “사내벤처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애자일(Agile)한 조직문화를 확산할 것”이라며 “사내벤처 구성원이 아이템 기획부터 개발과 사업화까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희 기자 che@

배달형 공유주방 ‘뜻밖의 특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공유주방 ‘만슬리키친’ 입점 업체인 ‘호랑이돈까스’는 최근 ‘썸썸한 호랑’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만슬리키친에 입점한 뒤 두 달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성장하긴 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 매출이 눈에 띄게 늘면서다.

호랑이돈까스의 2월 배달 매출액은 1월 대비 10%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매출액 증가 폭도 커졌다. 2월 마지막 주(2월 25일~3월 2일)의 배달 매출액은 1월 마지막 주(1월 28일~2월 3일) 대비 27% 증가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유주방을 통한 음식 배달 전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모양새다. 언택트(비대면) 소비를 향한 선호가 높아진 결과다.

코로나19 확산에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공유주방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공유주방은 설비를 갖춘 주방을 만들어 놓고, 원하는 시간만큼 임대하는 사업을 뜻한다. 자영업 창업자들



코로나에 언택트 소비 늘어
‘위국딜리버리’ ‘고스트치킨’
입점업체 매출 10%대 증가
배달앱·배달대행업도 호황

은 공유주방을 이용해 임대료나 설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내 1위 공유주방 서비스 ‘위국’은 배달형 공유주방 ‘위국딜리버리’에서 매출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배달 전문 공유주방인 위국딜리버리의 입점 업체 매출은 1월 대비 16% 증가했다. 위국딜리버리는 서울 신사, 논현, 역삼에 있으며 입점 업체는 30개다.

ICT 스마트 공유주방 업체 ‘고스트키친’도 입점 업체의 매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스트키친의 2월 매출액은 1월 대비 7% 늘었고, 2월 마지막 주 매출은 2월 셋째 주 대비 15% 증가했다. 통상 설 연휴 기간이 끼면 매출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도, 2월 마지막 주 매출액의 성장세는 ‘코로나 특수’의 영향을 증명한다. 고스트키친은 서울 삼성, 강남, 송파점 3곳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50개에 가까운 외식업체들이 입점해 있다.

국내 대표 배달 앱 ‘배달의민족’도 코로나19 확산 뒤 배달 주문 수가 확연히 늘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2월 17일~3월 1일 주문 수는 전주(2월 3일~2월 16일) 대비 7.2% 증가했다.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도 언택트 소비의 특수를 톡톡히 보고 있다. 바로고의 2월 17일~3월 1일 기간 배달 건수는 347만3000개로 이는 전주(2월 3일~2월 16일) 대비 8.7% 늘어난 규모다. 바로고 관계자는 “전체 배달 건수에서 공유주방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99.9%는 외식 업체 배달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에스티유니타스 ‘커넥츠 Q&A’ 美 교육앱 1위

에듀테크 기업 에스티유니타스는 전 세계적으로 베타 서비스 중인 자사의 문제풀이 앱 ‘커넥츠(Connects) Q&A’가 캐나다·영국·호주에 이어 미국에서도 1위에 등극하며, 정식 출시도 전에 글로벌 전역에서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커넥츠 Q&A’는 2월 중순 베타 서비스를 선보인 후 2월 23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5개국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교육 분야 1위

달성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영국, 호주까지 총 7개국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교육 앱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필리핀과 남아공에 이어 이달 3일 미국 구글플레이 스토어 1위에 오르며 총 10개국 앱 차트 1위를 휩쓸었다.

이번 성과는 에스티유니타스가 축적해 온 에듀테크 기술력을 앞세워 미국을 포함해 영어를 모국어이자 제1공용어로 사용하는 영미권 주요 국가들에서 높은 흥행

성적을 거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앱 다운로드의 11%를 차지하는 동시에 소비자 지출이 가장 큰 국가로 글로벌의 중심이자 앱 마켓 성숙 시장으로 분류된다.

또한 글로벌 테스트 중 전체 CPI(1인당 앱 설치에 드는 비용)가 미국 교육 앱 평균에 비해 약 12.5배 낮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미국 시장은 평균 대비 약 27배에 달하는 효율을 기록하며 고객 니즈에 부응함과 동시에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재훈 기자 yes@

ADT캡스, 매장 특화 음향 솔루션 출시

오디오 명가 ‘보스’와 제휴

보안전문기업 ADT캡스가세계적 오디오 그룹 보스(BOSE)와 함께 매장에 특화된 음향 솔루션 ‘캡스 사운드 by BOSE(캡스 사운드·사진)’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점포 내 배경 음악이 매장 이미지를 형성하고 고객 만족 및 재방문 유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프리미엄 음향 설비를 통해 매장 이용 경험을 차별화하려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

이에 ADT캡스는 보안업계 최초로 스피커와 디지털 앰프를 포함하는 음향 솔루션 ‘캡스 사운드’를 선보였다. 레스토랑, 카페, 헤어숍, 의류매장, 헬스장 등 배경 음악을 지속적으로 재생하는 매장에 적합한 상품으로, 소규모 매장의 경우 최소 앰프 1대와 스피커 1대부터, 규모가 큰 매장일 경우 다수의 마스터 앰프와 확장형 앰프, 여러 대의 스피커를 설치할 수 있다.



오디오 명가로 잘 알려진 BOSE 스피커 특유의 프리미엄급 음질이 내장된 디지털 앰프를 통해 명료하면서도 잔잔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 간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편안한 사운드로 매장을 한층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초기 설치 및 세팅 비용 없이 합리적 할부 가격으로 설치·사용·사후 관리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24개월 할부 방식으로 납부 완료 후에는 기기를 소유할 수 있으며, 시중에서 일시불로 구입할 때 대비 30% 저렴하다.

이재훈 기자 yes@

문 닫힌 하늘길… 면세·호텔업 해외 진출 ‘먹구름’

코로나19 확산에 96개국서 한국발 여행객 입국 규제
베트남 다낭 시내 진출 앞둔 롯데免税점 일 조율 중
‘신라 모노그램 다낭’ 오픈 연기… “열어도 매출 걱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업이 얼어붙으면서 해외 진출을 예고했던 국내 면세·호텔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5일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총 96개국이다. 올해 롯데면세점과 신라호텔이 추진하는 신사업 지역은 베트남과 싱가포르인데, 7일부터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는 직항 노선은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항이 중단된다. 싱가포르도 입국 금지 대상을 대구·경도에서 한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현지에서 오픈 작업에 투입할 인력은 코로나19 사태 전 이미 파견한 만큼 오픈 자체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지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오픈 작업을 최종 점검할 인력 투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오픈을 한다고 해도 관광과 소비가 위축된 만큼 오픈 이후 손님 모으기도 쉽지 않다.

롯데면세점은 베트남 다낭 시내면세점

의 오픈 일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하반기 베트남 다낭에 시내면세점 오픈을 예고했지만, 쇼핑물이 완공되지 않아 한 차례 미뤄고, 올해 상반기 오픈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오픈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롯데면세점 측 관계자는 “베트남 다낭 시내점 오픈을 위해 올해 초 TF 인력을 발령 냈고 현지에서도 인력을 채용해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본사에서 오픈 이후 가보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며 “프리 오픈 기간을 거쳐 상황이 나아지면 그랜드 오픈해야 할지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6월 싱가포르 창이공항점 오픈도 앞두고 있는데 상황은 시내면세점과 달리 공항에 입점하는 만큼 오픈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점도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1월에 TF인



력이 건너가 이미 오픈 준비 중이고,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오픈 준비도 빠듯한 상황이다”며 “창이공항은 24시간 운영이고,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만큼 비워둘 수 없어 6월 오픈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을 미루면 입점 브랜드별로 다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롯데면세점은 6월부터 6년간 싱가포르 창이공항 입·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면적은 약 8000㎡(2500평) 규모로, 롯데면세점 해외 매장 가운데 가장 크다.

롯데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운영권을 획득하기 전 2021년까지 해외 면세

점 매출 1조 원 달성을 공언했는데 지난해 10월 창이공항 운영권 획득 후 올해까지 1조 원 매출로 목표가 앞당겨졌다.

신라호텔의 새로운 브랜드 ‘신라 모노그램 다낭’은 오픈이 미뤄져 현재 오픈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라 모노그램 다낭은 2월 오픈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미뤄져 4월 오픈을 예고했다. 이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6일부터 호텔 예약을 받았지만, 오픈이 더 미뤄지며 현재는 예약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신라호텔 측 관계자는 “신라 모노그램 다낭은 위탁경영 방식으로 해외 진출하는 것인 만큼 운영사가 따로 있다. 현재 운영

사 측과 오픈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라호텔은 베트남 다낭을 필두로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여 개 도시에 진출을 계획했다. 하지만 ‘신라 모노그램 다낭’이 미뤄지며 글로벌 호텔로 도약하기 위한 신라호텔의 움직임은 더뎠다. 오픈이 미뤄진 신라 모노그램 다낭은 올해 상반기 안에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해외 진출이 예정대로 이뤄진다고 해도 코로나19 여파로 당분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계획에 맞춰 오픈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장사가 잘되느냐다. 베트남 다낭은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인도 많이 가는 관광 도시인데 코로나19로 여행을 자제하면서 오픈 이후 매출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또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위험 국가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 브랜드를 꺼리는 현상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만으로 입은 충격을 회복하는 데 1년 정도 걸렸는데 코로나19는 그 이상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미선 기자 only@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아동복에도 봄 내음

5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아동복 디자이너 편집숍 아베고뚜아에서 모델들이 봄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아베고뚜아에서 선보이는 이번 봄 신상품은 여아용 슈츠로 유명한 빈보렘바의 스니커즈, 마이리틀스타의 나비드레스, 프리미엄 아동복 브랜드 모모와의 여아용 드레스 등이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GS리테일 ‘초저가 와인 전쟁’ 가세

GS더프레스 ‘오페라티코 하바네라’ 3만 병 한정 3900원

GS더프레스가 3000원대 스페인 와인을 한정 판매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THE FRESH(GS더프레스, GS수퍼마켓의 새로운 이름)는 6일부터 9일까지 ‘오페라티코 하바네라(Operático Habanera)’ 와인을 3900원에 3만 병 한정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가격은 4900원이다.

GS더프레스가 지난해 와인 가격대별 판매 비중을 살펴본 결과 1만 원 미만 10.2%, 2만 원대 41.5%, 3만 원대 24.8%, 4만 원대 16.3%, 5만 원 이상 7.2%로 나타났다. 실제로 1만 원 미만 와인의 판매 비중은 2017년 7.9%, 2018년 8.1%, 2019년 10.2%로, 2만 원대 와인은 2017년 37.3%, 2018년 39.4%, 2019년 41.5%로 매년 증가했다.

저가형 와인이 고급 와인 못지않은 품질을 갖추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 작년에 처음으로 2만 원대 이하 와인의 판매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이다.

이에 GS더프레스는 스페인 식품기업인 굿테이스그룹과 손잡고 고객들이 데일



리로 즐길 수 있는 상시 초저가 와인 ‘오페라티코 하바네라’를 3일 론칭했다.

‘오페라티코 하바네라’는 고급 와인 생산지로 선정된 스페인 66개 지역에서 허가된 품종만을 사용해 엄격한 기준으로 제조되는 최고 수준의 DO 등급 와인이다. 스페인의 리베라 델 구아디아나 지역에서 풍부한 햇빛을 받고 자란 엄선된 100% 템프라니오 품종 포도로 만들었다.

임혁 GS리테일 주류 MD는 “오페라티코 브랜드의 2탄, 3탄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저가 와인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 주문… 모바일 선물하기 코로나19 확산 ‘언택트 소비’ 가속 페달

스타벅스 DT 주문 32% 늘고
SSG닷컴 화장품 판매 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소비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하며 언택트(untact,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소비 영역이 생필품 구매를 넘어 일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올들어 2월까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방문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하는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고객이 등록한 차량 정보와 연동해 스타벅스 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인 My DT Pass를 통한 주문 건수도 올해 두 달간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일반 매장처럼 채류 공간을 갖추면서 드라이브 주문 공간을 통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매장이다. 고객들은 매장에 도착해 화상 주문 스마트패널로 직접 주문하거나, 모바일 앱 주문 서비스인 사이렌 오더와 My DT Pass를 활용해 주문할 수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차량 이동 중 매장 채류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고객의 폭 역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장품의 비대면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SSG닷컴의 1월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화장품 관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보디케어 상품 매출이 98.5%로 가장 크게 올랐으며, 스킨케어가 80%, 명품화장품이 63.6% 증가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매출 증가에는 최근 ‘먼데이 문’ 뷰티 전문관 오픈을 통해 리뷰 코너에 키워드 검색을 도입한 게 주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고객들은 ‘촉촉한 파운데이션’, ‘밀착력 좋은 파운데이션’처럼 상품 속성 검색을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닌 ‘로봇’이 서빙하는 카페도 인기를 끌고 있다. 달콤커피는 업계 최초의 로봇카페 ‘비트(b:eat)’의 애플리케이션 멤버십(비트커피 앱) 가입자 수가 누적 10만 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4만 명) 대비 150%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래 올 들어 1만 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가 유입됐다.

비트는 자동세척 시스템으로 청결 및 위생 관리를 지원하며, 디지털 위생점 검표를 통해 투명한 식재료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로봇카페다.

언택트 소비 증가로 ‘선물하기’ 기능 이용 고객도 급증했다. 선물하기는 상대방과의 접촉 없이도 모바일을 통해 선물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티몬의 2월 ‘선물하기’ 하루 평균 매출은 전월 대비 6.3배 증가했다. 티몬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화이트데이에도 이 같은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선물하기’ 기획전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장(동덕여대 교수)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예컨대 VR(가상 현실)을 이용해 안전하더라도 집에서 쇼핑이 가능한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신세계그룹, 경영난 협력사 9000억 자금 지원

신세계그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돕기에 나선다.

우선 신세계그룹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의를 통해, 기초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 의료진과 구급대원, 자원봉사자, 보건당국 관계자들에게 생필품을 담은 구호 물품 ‘힘내라 키트’를 긴급 제작, 전달하기로 했다고 5

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회사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두 9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5000여 개의 중소협력회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8000억 원 규모의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11일까지

협력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마트는 4월 말까지 바이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조성한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동반성장펀드는 중소협력사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한 기금으로, 이 중 870억 원을 활용해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회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미선 기자 only@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기” 상장사 요구 봇물

‘코로나19’ 현장 감사 불충분 보고서 질적 저하 우려
“금융당국, 제출 지연 대상 모든 상장사로 확대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제출이 지연될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해준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향후 중국이나 대구·경북 지역에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사무공간이 폐쇄되는 기업들의 연기 신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제출 지연 허용 대상 기업을 한정하지 말고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료 준비 미흡이나 현장감사 불충분으로 보고서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논리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정보이용 및 향후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장사 5곳 제출 지연 신청… 3월 말 면제 여부 확정=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고 알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4곳(KH바텍, 오가닉티코스메틱, 화신테크, 골든센츄리), 코넥스 상장사 1곳(에스에이티이엔지)이다. 비상장사도 1곳이 신청했다.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경우 사업장 방문자가 의심환자로 분류돼 제출 지연을 신청했다가 음성 판정을 받아 관련 공시를 철회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국내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거나, 중국 및 경북 지역에 주요 사업장을 둔 업체들이다.

오가닉티코스메틱과 골든센츄리는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다. KH바텍은 국내 1~3공장 전체가 경북 구미에 위치해 있고, 지난해까지 중국 톈진과 후이저우에서도 공장을 운영해왔다. 화신테크의 경우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발생으로 인해 지난달 말부터 사업장이 휴업에 들어갔다.

향후 신청 기업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코스피 상장사 15개사, 코스닥시장에선 60개사가 정해진 시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기업

기업명	신청 날짜	신청 이유
KH바텍	2월 28일	주요 사업장 중국, 경북 위치
오가닉티코스메틱	3월 2일	국내 상장 중국 기업
화신테크	3월 3일	방문자 확진 의심돼 사업장 폐쇄
골든센츄리	3월 4일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에스에이티이엔지	2월 28일	중국에서 주요 영업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한 상장사 관계자는 “감사인이 중국 현지 실사를 가길 꺼려한다”며 “특히 실사를 진행하더라도 양국에서 각각 2주씩 격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아마 모두 제출 지연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한다. 행정제재 면제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은 3월 말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제재 면제 신청서 및 감사인의 의견서를 필수적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제재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 일괄 연기 주장도… 금융당국 “사회적 비용 고려해야”= 다만 일부 상

장사에선 제출 지연 신청 요건이 한정돼 있어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요사업장(자회사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외부 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로 제재 면제 조항을 한정짓고 있다.

물론 ‘이에 준하는 경우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추가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어진 제한선은 없다. 그러나 사유 증빙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시간과 혹여나 생길지 모르는 행정 제재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감사인이 한 기업만 담당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 처리가 업계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신청한다고 해도 증빙서류 제출 요구가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빠듯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통상 현장실사와 인터뷰로 이뤄지는 감사 과정이 이메일

이나 전화로 축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와 회계법인이 둘 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정상근무를 한다 해도 감사인의 회사 출입을 꺼려해 자료 제출이나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우려해 한국감사인연합회도 최근 “전체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을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정부 발표를 빌미로 감사자료의 준비 미흡과 현장 감사의 불충분으로 인해 감사보고서의 품질이 저하돼 회계 투명성이 퇴보할까 우려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전 상장사의 제출기한 요구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보고서 제출에 뒤따르는 주주총회 등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만든 조치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조건을 설정하기 쉽지 않았다. 가급적이면 기업들이 이번 사태로 겪는 어려움을 수용하려는 입장”이라면서도 “전 상장사 제출이 연기되면 투자자의 정보 이용과 향후 일정 조정 등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돌아온 주총 시즌… ‘코로나19’에 긴장감 최고조

“마스크 착용 필수·총회장 입장 전 발열 체크해야”
이동 경로·진행 요원 최소화… 비상연락처 확보도

주주총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상장사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경로와 진행요원을 최소화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상장사 1437개사(코스피 549사, 코스닥 888사)가 주주총회 일정을 밝혔

다. 6일 웹바이오텍과 뉴지랩을 시작으로 정기 주주총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장사들은 총회장 이동 경로와 마이크 소독 유무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 외부인 전용 출입구나, 열레베이터, 화장

실을 마련하는 등 동선을 최소화해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염의심 참석자를 접촉할 경우를 우려해 총회 개최 진행요원도 시간차로 움직일 계획이다.

앞서 대부분의 기업은 공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총회장 입장 전 발열 체크를 측정하며, 발열시 입장이 불가하다”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손소독을 해야 입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침 등 발열 증상이 있는 주주는 의결권 대리행사제도나 전자투표제

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코스피 상장사 관계자는 “총회장 앞에서 가족이나 친지 등의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국내외 여행 여부를 물을 계획”이라며 “또 확진자 발생을 대비해 참석 주주들의 비상 연락처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총이 끝난 후에는 총회장이나 화장실 등 꼼꼼하게 방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LG디스플레이는 매해 주주 편의를 위해 전시장 투어나 제공하던 본사와 주총장소 간 셔틀버스 운행

도 취소했다. SK하이닉스도 최근 중국이나 대구 방문 이력이 있는 주주 출입을 제한하며 주총장 좌석도 2m의 간격을 두고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준 대구와 경북을 소재지로 둔 상장사의 47.7%(코스피 18사, 코스닥 34사)만 주총 일정을 공시한 상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총 장소 마련을 비롯해 재무제표 결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대구에 위치한 기업 감사는 출장을 자제하거나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며 “필요한 제출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받는 등의 방법을 활용 중”이라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예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현금흐름 9년 만에 1兆 돌파

상장사 재무 분석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의 현금흐름이 지난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0년 이후 9년 만으로, 순익 증가의 영향이 컸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38조488억 원, 영업이익은 16.5% 증가한 2조3593억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2조2943억 원으로 21.5% 늘었다.

순이익의 경우 2016년 3조 원을 끝으로 2년 연속 1000억 원대에 머물렀지만 다시 2조 원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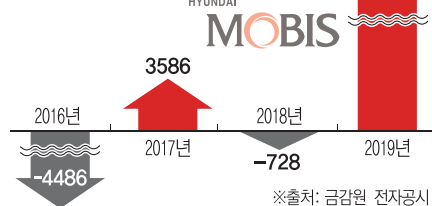
순현금흐름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순현금흐름은 1조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 순이익을 포함한 영업활동에서만 2조6441억 원의 현금흐름을 기록했다.

현대모비스의 현금흐름은 2010년 1조333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갔다. 특히 2015년부터 한 번을 제외하곤 모두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왔다. 현대모비스는 과거 순이익을 통한 영업 현금흐름이 많아도 단기금융상품 등 투자 활동에서 나가는 현금이 많아 전체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순이익 3조 원을 기록하며 영업활동에서 2조 원이 넘는 현금흐름을 기록했던 2016년에도 투자활동에서 더 큰 규모의

현대모비스 현금흐름 추이

(단위 : 억 원)



작년 매출 38兆로 8.2% 증가 순이익 2兆 넘으며 반등 성공 해외법인 성장에 올 매출 기대

현금 지출이 발생한 탓에 최종적으로 4486억 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당시 단기 금융상품 증가로 빠져나간 현금흐름만 7000억 원이 넘었다. 그러나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상품에 투자되는 지출이 점차 줄어들었고, 이와 함께 큰 규모의 유형자산 취득 역시 감소함으로써 대량의 현금 유출을 막았다.

재무활동에서의 현금흐름은 9720억 원의 마이너스를 기록, 역대 가장 많은 현금 유출을 기록했다. 장단기 차입금 상황이 전보다 늘어난 탓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순익 증가와 자산 관리 등을 통한 현금 유입이 많은 덕에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시장에선 현대모비스의 실적이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법인들이 점차 성장하고 있고 전동화 시장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중견그룹 일감돌보기

지오영

지오영그룹이 지역 중소 제약유통사를 인수하면서 외형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유통채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시장 입지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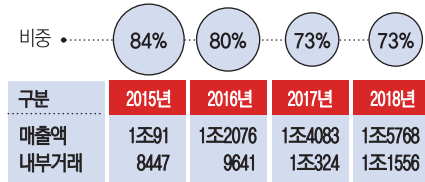
지오영그룹은 2002년 설립된 의약품 도매업체로 2007년엔 업계 최초로 자동화 물류센터를 설립했다. 2018년 연결기준 자산 규모는 1조1326억 원이다. 같은 해 매출액은 2조5762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500억 원 규모다.

지오영그룹은 지오영이 지주회사 격으로 전체 매출을 견인한다. 종속기업은 지오영네트웍스·대전지오영·호남지오영·제주지오영 등 10여 곳이다.

지오영은 글로벌 사모펀드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2009년 골드만삭스PIA의 400억 원 투자를 기점으로 급성장했다. 2013년에는 앵크프라이빗에쿼티가 골드만삭스PIA 지분과 회사 전환사

지오영 매출 현황 추이

(단위 : 억 원, 기준: 별도)



내부거래 규모 5년간 평균 77% 도매업체 인수로 네트워크 확장 작년엔 중견기업 삼일약품 인수

채를 인수하면서 1500억 원을 투자했다.

작년 6월엔 지오영의 재무적투자자가 앵크프라이빗에쿼티에서 블랙스톤으로 바뀌면서 주목받았다. 블랙스톤은 조선해 회장과 '조선해 지와이홀딩스'를 설립해 지분을 나누면서 1조1000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 이처럼 투자 자금을 바탕으로 지역별 군소 제약유통사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전국적인 유통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지오영그룹의 실적은 매년 성장하고 있

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4년 1조4889억 원→2015년 1조7130억 원→2016년 2조477억 원→2017년 2조3232억 원→2018년 2조5762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관계사가 지역별 유통 거점으로 활용되면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주로 그룹 내 매입이 이뤄지면서 내부거래 규모는 2014년 7763억 원→2016년 9641억 원→2017년 1조324억 원→2018년 1조155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은 2014년 77%에서 2015년 84%→2016년 80%→2017·2018년 73% 수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77% 수준을 보인다. 성장 과정에서 지역별 기존 도매업체를 사들인 전략도 유효했다. 그룹이 지역별 법인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기업을 인수하면서 빠르게 사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작년 7월에 인수한 삼일약품은 여수 지역에서 연간 400억~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이다. 남부지오영으로 사명을 바꾸고 그룹사 네트워크를 토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남부지역의 영업망을 전담하고 있다.

유헤림 기자 wiseforest@

“세하 매각과정서 유암코 불법 혐의 발견”

범창, 검찰 고발 검토

범창페이퍼월드(이하 범창)가 세하의 한국제지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매각 주체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5일 범창은 유암코와 최대주주인 시중은행 등에 전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범창은 파빌리온컨소시엄을 통해 세하 공개매각에서 한국제지컨소시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해 왔다.

범창 관계자는 “세하 공개 매각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의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발견했다”며 “검찰 고발과 금융위원회 진정 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영 기자 pgy@

범창의 의혹 제기가 검찰 기소로 이어질 경우 쟁점은 유암코의 ‘범위반 사실’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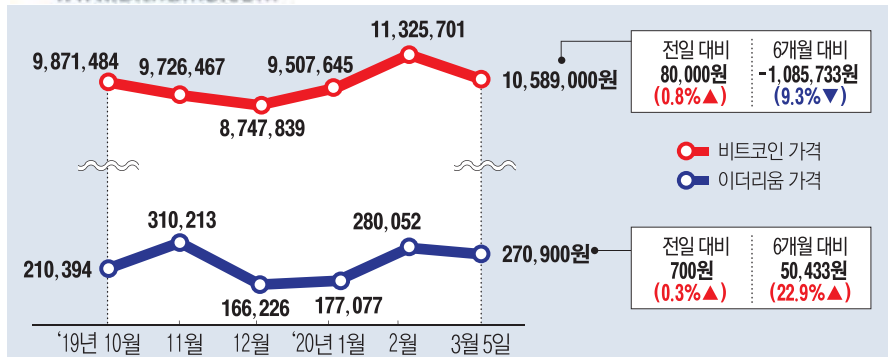
아울러 유암코의 지분을 나눠 가진 시중은행 7곳에도 ‘저가 매각’의 배경이 이런 불법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실제 범창 측이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것은 ‘불법 혐의’다. 범창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제지컨소시엄보다 약 50억 원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IB업계 관계자는 “M&A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는 가격”이라면서도 “다만 이 밖에 고려 대상은 지급 능력이나 의지 등 가격 외적 요소도 크다”고 말했다. 이런 정성적인 판단에서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범창의 주장이다.

bithumb 빗썸

빗썸 지수 (2020년 3월 5일 17:00, K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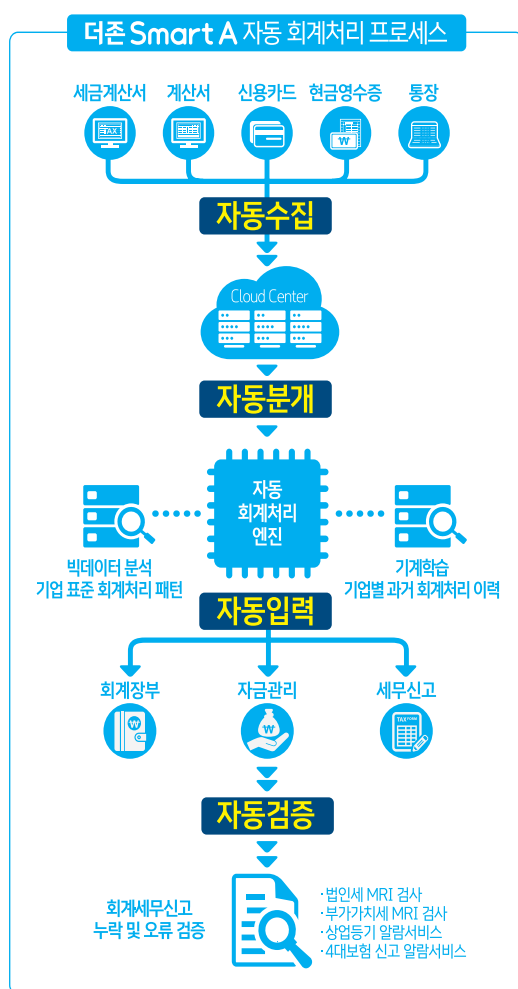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95,600	3,400 (0.9%▲)	모네로	81,350	250 (0.3%▲)
리플	282	-1 (0.4%▼)	비트코인골드	13,640	1,550 (12.8%▲)
라이트코인	72,800	250 (0.3%▲)	이더리움 클래식	9,630	-235 (2.4%▼)
대시	105,900	-500 (0.5%▼)	퀀텀	2,623	57 (2.2%▲)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중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술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오너家 회사 김치’ 고가 매입한 흥국화재 법원 “부당지원 행위 과징금 정당”

일부 승소... 22억 중 19억 취소
“전산 용역 계약은 유지·보수 대가”

대주주가 소유한 계열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김치를 구매하고, 이를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흥국화재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전산 용역 계약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흥국화재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22억 82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3억6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는 2011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정보기술(IT) 회사 티시스와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흥국화재는 티시스와 매년

용역계약을 갱신해오다 2014년 단가적용률을 기존 70%에서 74%로, 2015년에는 85%로 인상했다.

더불어 흥국화재는 티시스가 소유한 ‘휘슬락C.C’로부터 김치를 구매하면서 백화점 판매 가격보다 8억2000만 원 높은 금액을 냈고, 2013년 2월~2016년 4월까지 65개 법인 보험계약자에 8200만 원 상당의 김치와 와인을 제공했다.

금융위는 2018년 9월 구 보험업법을 근거로 흥국화재가 대주주 부당지원 행위를 했으며 과징금 총 22억8200만 원을 부과했다. 구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1항 2호는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취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 계약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흥국화재가 세 차례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정상가격보다 뚜렷하게 높은 가격으로 김치를 구매하고, 김치와 와

인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3억6300만 원의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티시스와의 전산 용역거래는 정상적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유가증권·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컴퓨터·네트워크·인적자원 등 자산의 이전 없이 순수하게 정보시스템의 유지와 보수 등을 대가로 대금을 지급한 이 사건 용역 거래는 구 보험업법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흥국화재가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티시스의 업무 난도가 개선됐다”며 “이와 함께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의무가 부과된 점에 비춰보면 연속된 단가 인상을 인상만으로 정상가격보다 뚜렷하게 높은 가격으로 체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종용 기자 deep@



짧은 휴식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앞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가 잠시 눈을 감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우리금융 회장〉 손태승 ‘DLF 중징계’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김앤장 등 변호인단 선임 마무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낸다.

5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날 오후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을 통보함에 따라 손 회장은 이달 6일 이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4일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지난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손 회장에 대한 개인 제재(문책경고)도 최종 결정됐다.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는 통보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선임된 손 회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우리금융지주

는 이달 25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법원이 손 회장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돼 무난하게 연임 궤도에 오르게 된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데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주총 전까지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 소송은 손 회장 개인 자격으로 진행된다. 손 회장은 법무법인 화우를 비롯해 김앤장과 LKB앤파트너스를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우리은행은 기관 제재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에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영업정지와 197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독일 등 선진국 국채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상품(DLF)은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안겼다. 이후 은행 본점 차원에서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집행정지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사 사례
건강상 이유 불구속 주장할 듯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이중근(사진)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달 2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2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



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회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으로 제한하고 이를 인용했다.

이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모두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항고가 이뤄지면 구속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이 회장은 이미 항고 기간이 지나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만큼 이번에도 고령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용 기자 deep@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오톨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물론 성공식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편안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알고 다르다면,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충알고 실천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충알고, 후속한 성장설계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사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적인 회계정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재산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람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0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0권을 읽고 1000시간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한 권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원격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함은 물론, 같이 읽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정호 지음 / 232쪽 / 448원 / 15.800원

100권의 책을 1000시간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 기술

10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0권을 읽고 1000시간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한 권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원격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함은 물론, 같이 읽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정호 지음 / 232쪽 / 448원 / 15.800원

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꼼짝마!

제조·유통사 267곳 집중 단속... 25곳 적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의심 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 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 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 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1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단속을 펼쳤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 장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 32만~56만 장을 보유했다. 서울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

중 유학생 동원 해외 반출 포착 인터넷 대량 불법 거래도 덩미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

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 업체인 B 사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덩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시는 B 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스크 대량 거래가 이뤄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여 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들을 엄격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하고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 업체(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기

준가격(2018년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 956곳에는 가격인상 경고 메일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도 진행한다.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동작구, 공원 6곳 대상 노후 조명 ‘LED’ 교체

서울 동작구가 도시의 야간조명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5월까지 ‘공원 LED조명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5일 동작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구가 관리하는 관내 공원 65개소에 설치된 조명기구 502개를 대상으로 LED조명 개선사업을 해 지난해까지 총 459개를 설치했다.

올해는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해 △산새이린공원(흑석동) △흑석비계소공원(흑석동) △노들나루공원(노량진동) △남성소공원(사당동) △삼일공원(사당동) △현충근린공원입구(사당동) 등 6개 공원에 노후된 등주 및 등기구 일괄교체 24개와 신규 설치 4개, 등기구 부분 교체 6개 등 총 34개 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개선한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50W LED조명등은 △집중 조명으로 빛 공해 발생 방지 △높은 시인성 △야간 범죄 발생률 감소 △긴 수명과 높은 전력 효율로 전력비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 등 여러 장점이 있다.

또한 4월부터 9월까지 사육신역사공원(노량진동), 노량진근린공원(흑석동), 까치산근린공원(상도동) 등 시 관리 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등주·등기구 일괄교체 30개, 등기구 부분 교체 77개 등 총 107개 LED 조명등을 설치한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LED조명 개선공사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주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5분 공원 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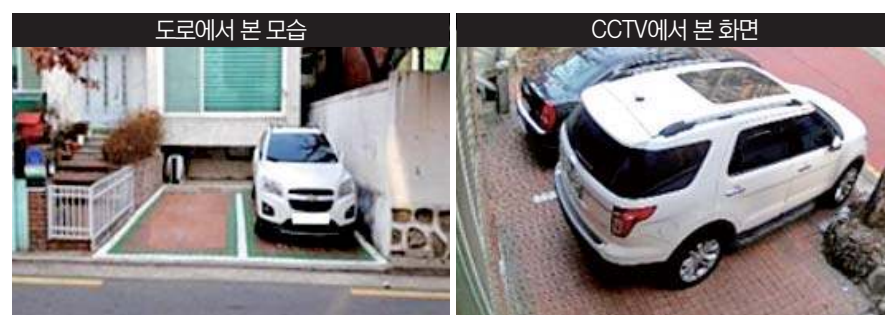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 본격화

서울시 ‘그린파킹’ 확대 운영 앱 통해 주변 주차정보 확인

서울시가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빈 주차장을 공유하고 부가수입을 얻는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는 그린파킹 주차면 바닥에 부착된 IoT 센서가 차량 유무를 감지해 이용자에게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며 비어있는 시간을 공유해 부가수입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서울시 ‘서울주차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내 주변 공유 주차면을



그린파킹 사물인터넷(IoT) 센서 설치 및 폐쇄회로(CC)TV 실시간 영상 사례. 사진제공 서울시

확인할 수 있다. 연동된 민간 주차공유 앱을 통해 주차면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주차장 제공자는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집 앞 주차장을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 운영 상황을 토대로 IoT 센서 기반 실시간 주차공유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올해부터 센서 설치비 등 지원 금액이 종전 900만 원에서 930만 원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민간 주차공유 업체인 한컴모빌리티와 ‘그린파킹 주차공유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해 IoT 센서 기반 실시간 주차공유 시스템 기반을 마련해왔다. 앞으로

다른 민간 주차공유 업체와도 ‘서울주차정보’ 앱 연동을 통해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를 확대해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각 자치구 관련 부서를 통해 실시간 주차공유 시스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상시 모집한다. 그린파킹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시민뿐 아니라 기존에 참여한 시민도 주차공유 센서 설치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 도입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나눔 문화 형성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그동안 담장에 막혀 소통이 어려웠던 이웃 간 공동체 의식도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서울시 ‘그린파킹’ 사업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야간에 인근 주민과 주차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아파트(공동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진희 기자 jh6945@

Premium Toothpaste

천연유래 식물성분 처방 덴탈 스케일링 치약

9無 루바스천연치약

20년 한방발효과학
100세 건강치약
루바스가 앞장서겠습니다!

유해 성분 9無

치은염, 치주염 예방
구취, 치태 케어

잇몸질환 예방
약한잇몸 케어

無 불소

無 광물성 오일

無 동물성 원료

無 안식향산 나트륨

無 파라벤

無 침강탄산 칼슘

無 SLS

無 사카린 나트륨

www.lubaskorea.com

구입문의 1599-0203

“나잇값 잘 하려면 ‘라떼는 말이야’ 절대 금지”

77세 원로가수 김상희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울산 큰애기’, ‘대머리 총각’ 등의 노래들로 국민가수의 삶을 살았던 김상희. 그녀는 1961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생 신분으로 가수 데뷔를 해 장안의 화제가 됐다. 여성이 법학과 엘리트라는 점도 특별했지만, 그런 사람이 소위 ‘딴따라’ 가수를 한다는 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과감한 선택은 성공이라는 보답으로 돌아왔다. 다양한 히트곡을 발표하며 1960~197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살았던 그녀에게는 50여 년을 함께 한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지난 시대의 역사가 있다. 삶 속 지혜 가득한 그녀의 얘기를 들어봤다.

김상희와의 인터뷰를 시작했을 때 특유의 보이시한 저음이 매력적으로 들려왔다. 밝고 힘 있는 목소리 톤에서는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1943년생, 올해 행운의 숫자 7을 두 개나 갖는 나이가 됐다.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자마자 그토록 젊음을 유지해주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야 우리 남편이죠. 남편은 우리 집 원동력이고, 아주 좋은 친구예요.”

김상희의 남편은 유훈근 씨. KBS 피디(PD) 출신인 그는 1968년 그녀와 결혼해 어언 52년간을 함께해 왔다. 이혼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졸혼이 유행처럼 얘기되고 있는 요즘, 이 부부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단단해 보였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했을 터다.

남편은 인생의 등대이자 쉽터 배려하는 마음에 늘 행복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인연 10·26 사건날 청와대에서 노래

행복의 근원은 남편의 배려심

“대학 4년 동안 그야말로 남자 대학 같은 곳에서 공부했어요. 당시엔 여학생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또 밖에 나와서 만나는 방송계, 언론계 사람들도 다 남자들이었고요. 말하자면 남자들 세계에서 생활한 셈인데, 남편이 혹시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한 번도 그런 내색은 안 하고 편하게 대해줬죠. 친정 부모님은 내가 가수생활 하는 걸 정말로 싫어하셨어요. 시댁에서도 그랬죠. 그러나 양가 어른들께 용감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남편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남편은 등대이자, 나무 그늘이었다고 표현했다. 전혀 불평도 안 하고 감싸주고 보살피주니 그녀로선 당연히 남편을 인생의 동반자처럼 항상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부부는 서로에게 마음을 다 주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특히 상대의 자존심은 꼭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남편은 잔소리, 특히 한 말을 또 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부부생활은 상대의 잘못은 잘 보이고 내 허물은 잘 안 보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잔소리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를 ‘난만 보고도 웃을 수 있는 사이’라고 말한다. 밤에 자다가 문득 눈이 떠질 때가 있는데, 그때 옆에 있는 남편을 보면 너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든단다. 그저 고맙기만 하다고.

“요즘 남편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돈 버는 일을 좀 더 많이 하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 벌었잖아, 우리 살렸잖아. 그런데 왜 자꾸 그래’ 하고 말해주곤 해요.”

정치와 연을 끊은 사연

남편의 후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시댁은 정치하는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가 5선 국회의원이고, 시숙부도 4선 국회의원이었죠. 종갓집 만드느라고 할 일도 많았고 마음고생도 했어요.”

어느 날 PD였던 남편에게 김대중 당시 신민당 총재가 함께 일하자고 찾아왔다고 한다. 거절했지만 요청이 세 번이나 반복되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가수 김상희는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을 작곡한 김강섭 선생을 모시고 봄날 벚꽃 구경을 하며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친정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할 때 남편한테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언약을 받았어요. 남편이 고민할 때 나도 생각이 많았죠. 그러나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죠.”

남편은 결국 김대중 당시 신민당 총재 공보비서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무렵은 서슬 퍼런 1980년대 독재정권 시절이었다. 야당 의원 공보비서가 된 남편과 그런 남편을 둔 가수를 정권에서 곁에 볼 리 없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정치적 망명을 떠나야 했고, 그 시간 동안 김상희는 방송 출연과 공연 금지를 당해야 했다. 그때 햄버거 장사도 해본 적 있다.

“그런데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내가 계산을 잘 못하는데다 원가와 이익 구분도 못 하겠더라고요. 장사를 하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귀국한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는 마음 아파했죠.”

그러나 남편의 정치 도전은 끝이 좋지 못했다. 마침내 사면을 받고 귀국한 그는 전주시 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남편에게 전주 갑은 아버지의 지역구였기에 의미가 컸다. 그러나 막상 당에서 공천 명단을 발표했을 때 남편은 떨어지고 변호사 출신 인사

가 후보가 됐다. 남편은 분노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그 결과는 낙선이었다. 이 일로 환멸을 느낀 남편은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10월 26일, 뒤통수가 얼얼했던 날

어쩌면 그런 ‘팔자’였을까. 김상희에게도 정치계와 관련된 비화들이 있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10·26 사건과 그녀가 인연이 있다는 건 뜻밖이었다.

“어느 날 밤 청와대에서 공연을 하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나이트클럽과 계약이 되어 있었던 터라 못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문화공보부장관이 몇 시스테이 지나고 물더라고요. 9시, 11시라고 했더니 그럼 그 전에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갔죠. 그런데 노래를 끝내고 나왔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낱다 소리를 질렀죠. 장관 이름을 부르면서.”

청와대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다니 대단한 ‘깡’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부르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 소리를 듣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박 대통령은 그녀를 장난삼아 ‘깡패’라고 부르곤 했다는데, 그녀의 대찬 기질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었다.

“‘아이, 깡패.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공연 때문에 나이트클럽에 가야 하는데 내보내준다고 해놓곤 연락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비서들에게 ‘여기 봐!’ 하더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 거 아니냐’ 하고 혼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쏠살같이 공연하러 갈 수 있었죠.”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였기에 박 대통령의 사망 소식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줬다.

“10월 26일 저녁에 청와대 연회 공연이 있었어요. 공연을 끝내고 저는 돌아왔고요. 그런데 그 후 안가에 사건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머리가 멍하더군요. 바로 전에 만났는데…”

다양한 장르 섭렵한 멀티 플레이어

이제 그녀의 음악세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요즘 김상희는 대중가요보다는 클래식이나 품격 있는 공연에 더 어울리는 느낌이다. 양재무 음악감독이 이끄는 남성합창단 이마에스트리와 함께하는 공연도 그렇다. 이마에스트리로선 창단 이후 최초로 대중가요 가수와 협연하는 공연이기도 하다. 그런데 60년 가수생활 동안 그녀는 가요만 부른 게 아니었다.

“이탈리아 가곡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부른 게 있고 동요도 불렀어요. 일본에선 재즈

가요에 뮤지컬·영화·클래식까지 60년 가수생활하며 다양한 무대

연예인한마음회 이사장 활동 등 열린 마음으로 귀 열고 소통에 최선

앨범도 만들고 뮤지컬 넘버를 발췌한 앨범도 냈어요. 내가 생각해도 정체성이 뭐지 모르겠어.(웃음) 뮤지컬도 하고 영화도 찍고 할 거 다 했거든요. 이번에는 클래식과 함께하는데 이질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즐기는 사람’, 뭐든지 잘 흡수하는 ‘한지 같은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스스로 문제가 좀 있다고 했다. 게으르다는 것이다.

“처음엔 잘해요.(웃음) 그런데 내 뒤통만 하는 타입이죠. 요즘은 젊었을 때보다 노래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졌으니까요.”

나이 들어도 소통이 되면 외롭지 않아

사단법인 한국연예인한마음회 이사장이자 가요계의 원로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그녀에게 사람들과 잘 지내는 비결을 물어봤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와도 소통이 되면 외롭지 않아요. 어떻게든 귀를 열어 듣고, 얘기할 때는 나잇값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사실 나잇값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서로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일단 듣고, 의견을 물으면 맨 마지막에 해요. 너무 나서지 않고요. 특히 ‘내 나이가 알만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은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로 ‘양가에서 결사반대했는데 결혼한 것’을 꼽았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했어도 가족이 화목하다는 것도 마음에 든다고 했다. 그녀가 지키는 삶의 법칙은 절대 남에게 험한 얘기를 안 하는 것이란다. 화가 나도,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은 평생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얻은 좋은 기운이 그녀의 삶을 굳게 지켜준 것인지도 모른다.

“가수로, 엄마로, 아내로, 나로서 잘 살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내가 죽었을 때 슬퍼할 사람들이 있다면 잘 산 거겠죠? 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하고요.”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쉽게 꺾이지 않는 코스모스 같은 그녀의 노래가 깊은 내면 속으로 울려 퍼졌다.

글/김영순 기자 kys0701@

사진/홍상돈 프리랜서 photohong1@hanmail.net

Hansol
한솔홈데코

우리집엔 어떤 스타일의 마루가 어울릴까요?

마루는 우드패턴 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SB마루를 만나보세요.
우드패턴은 물론 대리석 패턴, 헤링본 시공도 가능하며,
에스비 강, 에스비 엠보까지 다양한 마루로 인테리어 스타일을 빛나게 합니다.

실용성에 스타일까지 갖춘 강마루 – 한솔 SB마루



※제품별 친환경 SB 전용 접착제 사용(황토, 프리미엄)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 마루

대리석 / 우드 / 헤링본 / 에스비 강 /
에스비 엠보



습기에 강한 실용마루

장시간 습기에 노출시에도 치수 변화 및
팽창에 안정적



친환경 소재의 건강한 마루

아토피인증, 항곰팡이 인증 획득

한솔홈데코 「받고 또 받고」 이벤트



한솔홈데코 유튜브영상을 보면
푸짐한 상품권이 와르르!

기간 : 2020년 3월 1일(일)~3월15일(일)

▶자세한 내용은 한솔홈데코 홈페이지(www.hansolhomedeco.com) 참조.

“시진핑 방한 계기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논의”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환경변화로 투자 문의 늘어나는 추세
수변도시·재생에너지...올해 확실히 변화하는 새만금 만들 것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 중산업협력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확실하게 변화하는 새만금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최근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1.4GW급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에 대한 다양한 컨셉트 제안서 14건을 접수해 데이터센터와 복합도서관 기반인 벤처기업육성, 복합용지 및 관광·레저용지 개발 등 4건의 사업모델을 채택했다”며 “이달 사업자 공모를 거쳐 7월 중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조성, 공공매립 추진, 기반시설 조기구축 등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 새만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융복합산업과 일본의 무역규제로 인한 소재·부품·장비 앵커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고 연내 협약 체결이 기대된

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스마트수변도시 매립사업 착공(11월), 잼버리대회(2023년) 등에 따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도 사업모델 및 제도 개선방안 등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청은 신시야미지구(1.92㎢)에 글로벌 해양리조트 조성을 위해 호텔·위더파크·골프장·마리나 등의 복합관광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김 청장은 특히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산업협력단지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까지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중국 기업 유치 실적이 많지 않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투자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무역갈등, 한국제조 프리미엄,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새만금에서 중국 투자를 늘릴 기회 요소가 되고 있고 새만금 인프라의 속도감 있는 개발, 재생에너지 및 모빌리티 융복합클러스터 등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5일 집무실에서 새만금 주변 지도를 가리키며 올해 새만금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 등 투자 여건 개선도 투자 유인에 긍정적”이라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새만금 기업입대용지를 100만㎡ 추가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100만㎡를 확보해 20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상반기 안에 태양합금, 해상풍력센터, 세미 등 7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계획이다.

장기입대용지는 입주 희망기업이 재산가액의 1% 수준 임대료만 내고 100년간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다양한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수요는 앞으로도 충분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김 청장은 올해 “동서도로 개통 및 주요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해 내부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 수변도시와 재생에너지 선도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새만금, 확실하게 변화하는 새만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5명 임명
기획경영 김종민·전략감독 이진석



금융감독원은 5명의 신임 부원장보를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경영부문 부원장보에 김종민 전 기획조정국장이 올랐고, 전략감독은 이진석 전 감사실 국장이, 보험담당은 박상욱 전 생명보험검사국장이, 금융투자는 김동회 자본시장감독국장이, 소비자피해예방 부문은 조영익 전 감독총괄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들 임기는 6일부터 2023년 3월 5일까지 3년간이다.

김동성 은행담당 부원장보와 정성웅 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는 유임됐고, 이성재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중소서민부문에 이동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재선임

NH투자증권은 5일 정기이사회에서 정영채 <사진> 사장(대표이사)을 임기 2년으로 재선임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대우증권을 거쳐 2005년 NH투자증권의 전신인 우리투자증권에 합류했고, IB(투자은행)사업부 부사장을 거쳐 2018년 사장으로 선임됐다.

NH투자증권 이사회는 또 이정대 비상임이사를 임기 1년으로 재선임하고, 상근 감사위원(사내이사)으로 임병순 전 금융감독원 실장을 임기 2년으로 신규 선임하기로 내정했다. 아울러 사외이사로 홍성동 전 NH농협증권 부사장과 정태석 전 광주은행장을 임기 2년으로 신규 선임하고 비상임이사로 김형신 한협금융지주 부사장을 임기 1년으로 신규 선임하기로 했다.

박기영 기자 pgy@

부동산개발협회장에 김승배 대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협회 회관에서 제12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를 제5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1983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37년 동안 건설산업에 종사한 부동산 개발 분야 베테랑이다. 2004년 피데스개발을 설립해 국내 부동산개발업계를 대표하는 회사로 키웠다. 경북 의성군 출신으로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조중훈 한진 창업주 탄생 100돌 ‘수송보국’ 철학 재조명

트럭 1대로 시작 육해공 아울러
그룹 관계자 60여명 추모 행사

수송보국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송 사업을 발전시킨 인물로 평가받는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5일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한진그룹은 이날 조중훈 창업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소재 신갈 선영에서 약 60명의 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추모행사를 가졌다.

1920년 2월 11일(음력)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5년 11월 1일 인천에 트럭 한 대를 가지고 한진상

사를 창업해 한진그룹의 태동을 시작했다. 고인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사업에서 위기를 맞았지만, 그간 쌓아온 신용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상송세를 이어가 1967년 7월에는 해운업 진출을 위해 대진해운을 창립하고, 그해 9월에는 베트남에 투입된 인원과 하역장비 등에 대한 막대한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인수했다. 1968년 2월에는 한국공항, 8월에는 한일개발을 설립하고, 9월에는 인하공대를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듬해인 1969년에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국영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 대한항공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항공사업에 뛰어들었다.

“국적기는 하늘을 나는 영토 1번지고, 국적기가 날고 있는 곳까지 그 나라의 국력이 뻗치는 게 아니겠소.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전용기는 그만두고서라도 우리 나라 국적기를 타고 해외여행 한 번 해보는 게 내 소망이오”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들인 과감한 결단이었다.

1977년 5월 조중훈 창업주는 육·해·공 종합수송 그룹의 완성을 위해, 경영난을 겪고 있던 대진해운을 해체하고 컨테이너 전용 해운사인 한진해운을 설립했다. 1989년에는 5월 한진중공업출범시키기도 했다.

고인은 ‘진정한 낚시꾼은 한 대의 낚시대대로도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는 낚시대



로웠다. 이에 아주대병원장은 최근 의사 5명, 간호사 8명 등 의료진을 추가 채용하기로 하면서 닥터헬기 운항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달 4일 경기남부권 역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났지만, 외상센터 평교수직은 유지해 경기도와 아주대병원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닥터헬기에 탑승할 수 있다.

이재명 기자 lly0403@

에쓰오일, 성금 5억 기탁

에쓰오일(S-OIL)은 5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성금으로 5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국민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전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은 작은 정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부이사관(과장급) 승진 △제조혁신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우순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이대건

◆한국관광공사 ◇정보 및 보직변경 △부산울산지사장 조윤미 △강원지사장 박범석 △속박개선팀장 정해경 △관광취업지원팀장 조희진 △지역관광개발팀장 이태호 △전북지사장 박정웅 △광주전남지사장 이상태 △울라바토르사무소장 김광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부장·소장 △물리표준본부장 강노원 △화학표표준

본부장 이상일 △산업응용측정본부장 송재용 △첨단측정장비연구소장 강상우 △양자기술연구소장 박희수 ◇실장 △정책실장 김완호 △연구전략실장 성은정 △기획실장 김양훈 △홍보실장 박혜린 △국제협력실장 황인용 △정보전산실장 김기태 △총무복지실장 최대우 △사업재무실장 박진선 △구매자산실장 한성 △시설안전실장 이일수

◆MBC △콘텐츠통괄부사장 정호식 △기획조정본부장 강지웅 △미디어전략본부장 도인태 △보도본부장 민병우 △콘텐츠평론본부장 이근형 △경영본부장 전병덕 △방송인프라본부장 김상훈 △시정자소통센터장

윤미현 △기획국장 정영하 △미디어기획국장 이성주 △미디어사업국장 권석 △예능본부장 김구산 △콘텐츠키니지국장 최원진 △특임사업국장 한정우 △영상미술국장 안종남 △아나운서국장 박경주 △뉴스영상콘텐츠평론국장 허행진 △통일방송연구소장 김현경 △경영지원국장 박미나 △자산개발국장 이정상 △기술인프라국장 김재상 △제작기술국장 한상길 △관계회사실장 이정식 △디지털인센타장 서영오 △미래정책실장 이연주 △방송IT센터장 최병호 △영상센터장 박정문 △예능기획센터장 전진수 △콘텐츠평론센터장 임남희 △D.크리에이티브센터장 이동희

부음

▲이배영(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씨 별세, 이호성(자영업)·인성(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판매기획팀 부장)·경숙 씨 부친상, 고태훈(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씨 장인상 = 5일,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031-382-5004

▲신화식 씨 별세, 신인호(국방일보 팀장) 씨 부친상 = 5일, 인천삼성장례문화원 2층 특실, 발인 7일 오전 6시30분, 032-777-4445

정진학 레미콘공업협회장 연임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5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20대 회장에 정진학 회장을 재선임했다.

정 회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화그룹을 거쳐 1994년 유진그룹에 입사해 부사장을 거쳐 현재 유진기업 사장이자, 계열사인 ㈜동양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최영희 기자 che@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기 상황에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는 더 명확해진다.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분별하여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듯, 위험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를 챙기는 데 국가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국가 채무를 늘리는 재정은 지금처럼 예측 못한 가장 위급한 위기에, 가장 어려운 곳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평소에 재정건전성도 챙겨놔야 한다.

2020년 3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봄을 맞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학이 연기된 모든 아이들이 집에 묶이고, 많은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로 일하며, 가게들마다 손님이 없어 종업원을 쉬게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러다보니, ‘불안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85%, ‘일상이 정지했다’고 느끼는 국민도 절반을 넘어선다. 최근 발표된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인식조사 결과다. 위기가 모두의 일상을 지배하고, 불안감이 일반 국민에게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집중된 곳들이 있다. 처음으로 대규모 시설 감염이 발생한 경북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는 5층 병동에서만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온 정신질환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가감없이 조명받게 되면서, 이번 대규모 시설 감염 사태는 우연보다는 필연에 가깝다는 걸 우리 사회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4000명을 넘어섰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94%가 이 지역에서 나왔

다. 이곳 의료진은 지난 2주간의 쉼 없는 사투로 피로가 누적되어 쓰러지기 직전에 놓였고, 병상을 구하지 못한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일상 의료에 관한 한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 병상과 의료인력은 막상 전염병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총 병상 수는 12.3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7개)의 2.6배에 달하지만, 공공병원 병상 비율은 전체 병상 수 대비 약 10.3%에 불과하여 OECD 평균(73.7%)의 7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메르스 사태를 겪은 이후에도 허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고령자와 기저환자들이 주로 감염되는데는 통념과 달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20·30대 청년이 무려 41.4%라는 점은 놀랍다. 이들은 대부분 신천지를 통한 집단감염인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덕분에 우리나라의 신천지 교인의 다수가 청년층이라는 사실도 국민들이 알게 됐다. 우리 사회가 청년세대

문제에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는 동안, 신천지는 사회에 마음 붙이지 못한 불안한 청년층을 문화전도를 통해 정성 들여 공략해 신도로 삼아왔던 것이다. 결국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의 감춰져 있던 취약지점이 어디인지를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바이러스의 직접 공격만이 아니다. 재난의 위기는 이 사회의 약한 곳으로 증폭되고 있다. 공공병원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감염병 치료에 집중되자, 진료비 부담으로 일반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가정방문 교사와 아르바이트생, 대구·경북 지역의 식당과 가게들, 일용직 근로자들이 별이를 잃고 소득 공백에 놓였다. 다른 이들의 일상이 멈출 때에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일터로 나가며 개학이 연기된 3월 내내 돌봄 공백을 견뎌내야 한다. 방학 동안 급식지원 카드를 들고 편의점을 전전한 돌봄공백의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개학 연기는 집도 학교도 밥을 주지 않는 시간의 연장이다. 끼니마다 요

일마다 지자체마다 지원체계가 다른 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복잡한 전달체계는 어려운 환경의 모든 아이에게 따뜻한 세끼 밥을 제공하는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대응조차 어려운 일로 만들고 있다. 복지국가는 제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할 책임이 있다. 모든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되, 위기 상황에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는 더 명확해진다.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분별하여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듯, 위험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를 챙기는 데 국가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국가 채무를 늘리는 재정은 지금처럼 예측 못한 가장 위급한 위기에, 가장 어려운 곳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평소에 재정건전성도 챙겨놔야 한다. 위기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약한 부분들을 보며, 우리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다. 그리고 이제라도 소 잃은 외양간을 고치자. 위기일수록 취약한 이들을 더 챙기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다.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경제학 박사·전 통계개발원장

데이터 3법,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지려면

이투데이, 말투데이

얼마 전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데이터 3법의 주된 내용은 ①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②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하며 ③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며,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보 접근이 용이해지면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적 이용으로 시민들의 불이익 및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우려와는 달리 필자는 데이터 3법의 효과나 부작용 모두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가명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가명 데이터란 개인정보에 대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항목(예를 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다른 형태로 바꾼 것을 말한다. 요즘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 확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5번 확진자’, ‘31번 확진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가명 정보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세청과 의료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결합하여 국민들의 개인별 소득과 진료기록을 파악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국민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주소와 같은 개인 신상에 관한 항목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국세청과 의료보험관리공단 모두

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 동일한 가명을 부여하여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두 데이터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의 이용을 확대하는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이 왜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인가?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먼저 이번 법 개정에서는 가명정보의 이용 범위를 통계작성,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전에 한정시켰다. 첫째는 데이터 사용의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가명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여전히 엄격히 규제되므로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둘째는 가명 데이터 사용에 수반되는 현실적 문제로, 설사 상업적 목적의 가명 정보 이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가명 정보의 사용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제도적 기반이 아직 불충분하다. 다시 앞의 예를 보자면 가명정보를 이용하여 국세청과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자료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두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모두 보유한 제3의 기관, 즉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통계청의 데이터 허브와 같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기관의 통계를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아 연결시킨 후 가명정보로 전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을 설립하는 데에는 많은 현실적·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결합에 대한 논의는 수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데이터 보유기관이 자발적으로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데이터 보유기관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데이터 3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획기적 변화는 그다지 기대하기 어렵다.

☆ 앨런 그린스펀 명언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무섭다.”
18년간 네 번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재낸 인물로, ‘세계의 경제 대통령’ ‘미국 경제의 조타수’ 등으로 불린다. Fed 의장 임명 당시 주가가 하루에만 22%나 폭락하는 등 세계경제 위기 사태를 잘 해결하고 미국을 건져 내 월가에서는 신화적 존재로 추앙받는다. 그는 정권의 이익보다는 미국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 때문에 이따금 정권과 불편한 관계를 갖기도 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26~
☆ 고사성어 / 천금매소(千金買笑)
천금을 주고 웃음을 산다는 뜻으로,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함을 비유한다. 열국지(列國志)가 원전. 서주(西周)의 마지막 임금 유왕(幽王)이 사랑한 포사(褒姒)가 웃는 법이 없자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매일 백 필의 비단을 그녀 곁에서 찢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곡석보(鵠石父)의 제의로 봉화를 올리도록 했다. 제후들이 적이 침입해 온 줄 알고 군대를 이끌고 달려왔다가 자초지종을 듣고는 아이없어 했다. 그 모습을 본 포사가 크게 웃자 유왕은 곡석보에게 상으로 천금을 내렸다. 훗날 견용(犬戎)이 쳐들어와 급히 봉화를 올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 유왕은 결국 오랑캐에게 살해됐다.

“교육부가 권고 형식으로 보낸 공문만 수십 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학사일정 조정까지 발동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정신없는 대학 관계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특히 교육부의 ‘자율’로 포장한 ‘하향식 통보’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대학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하루에 1~2개씩 학사조정 관리 공문을 보낸다. 일부 공문은 시행하기도 전인 그다음 날 수정된 내용이 다시 날아온다. 행정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목줄을 쥔 교육부의 하명(?)이니 무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지도 못한다. 속으로만 끄광하고 있다. 교육부도 내심 미안했는지 최근 발표한 비대면 재택수업 도입 원칙은 대학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추가 대책을 논의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학들을 상대로 재택수업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런데 재택수업 자체가 처음부터 교육

부의 의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의 권고 사안인 재택수업을 공문에 담아 대학들에 발송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학가에선 교육부가 의견 수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불만을 잠재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사람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정책 결정이 더는 하향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의 모든 책임을 떠안은 대학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부는 진심으로 대학들에 다가서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쫄쫄은 지금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시사상식 / 국외저축
개별 경제주체가 모자라는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경제가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게 되면 부족한 돈을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저축은 경상수지 적자와 일치하며 경상수지 적자는 순국외채무(국외채무-국외채권)의 증가로 보전된다.
☆ 유머 / 개와 달리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이길 경우, ‘개보다 더한 놈’
질 경우, ‘개보다 못한 놈’
비길 경우, ‘개 같은 놈!’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손현경 사회경제부/son89@

교육부가 대학에 보내는 ‘권고’ 공문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지도 못한다. 속으로만 끄광하고 있다. 교육부도 내심 미안했는지 최근 발표한 비대면 재택수업 도입 원칙은 대학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추가 대책을 논의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학들을 상대로 재택수업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런데 재택수업 자체가 처음부터 교육

이슈&인물

역대 최대 '코레일 법인세 환급' 승소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

“법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재무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그룹 조일영(55·사법연수원 21기) 파트너 변호사는 2일 서울 테헤란로 강남사옥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코레일 법인세 환급 소송’ 최종 승소 소식을 들었던 당시를 담담하게 회상했다. 조 변호사는 2013년 10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부터 6년간 코레일을 대리해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전부 승소를 끌어냈다.

지난해까지 조세그룹을 이끌었던 조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뿐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재판장으로도 근무해 조세 사건의 법률심과 사실심 모두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로 불린다. 조세그룹의 바통은 역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낸 강석규(58·25기) 파트너 변호사가 이어받았다.

◇ 1조 원대 소송 승리 비결은 최고 전문가 영입 = 코레일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로 서울 용산역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낸 국세·지방세·환급가산금(이자) 등 총 9000억 원가량을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조 변호사와 장성두(42·36기) 파트너 변호사가 대리해온 이 사건은 코레일이 2013년 8조 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2007~2011년에 납부했던 8800억 원의 법인세 등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낸 소송이었다.

법리적으로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계약 해제’의 유효 여부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의 기산일은 이로 인한 분쟁의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계약 해제 효력 발생일로 봐야 한다고 명확하게 해석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법조계에 새 역사를 쓴 태평양 조세그룹에는 조 변호사, 강 변호사를 비롯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낸 심규찬(47·30기) 파트너 변호사가 있다. 최근 10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거친 변호사가 3명씩이나 소속돼 있는 로펌은 태평양이 유일하다. 이들을 필두로 조세그룹에는 송우철·한위수·유철형·김승호·주성준 파트너 변호사 등 65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 절차와 법리가 복잡한 조세소송은 ‘컬래버’가 관건 = 조 변호사는 민·형사소송과 다른 조세소송만의 차별점을 ‘2단계 절차’와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두 가지를 꼽았다. 조 변호사는 “조세소송의 경우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 감사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정당해도 완전 무효가 아닌 이상 다룰 수 없이 각하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인 3개월이 지나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다. 법인세 경정처분의 경우 납부한 때로부터 5년 이내라는 제한기간(경정청구기간)이 있다.

조 변호사는 “조세 법률서비스는 단순한 조세법령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각 산



국내 최대 규모인 9000억 원대 ‘코레일 법인세 환급 소송’ 최종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팀이 2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성두·조일영·강석규 파트너 변호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용산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낸 국세·지방세·환급가산금 등 총 9000억가량 돌려받게 돼

조세소송은 전심-법원 2단계 관세통상·국제조세·조세입법... 다수 TF팀 컬래버 승소 이끌어

자주 바뀌는 특례법 숙지 필수 미연에 과세 방지 ‘사전진단’ 모순 법규 ‘입법 컨설팅’ 병행

업 분야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세그룹 내부뿐만 아니라 법인 내 기업법무, 금융, 기업구조조정, 기업승계 관련한 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새로운 업무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통상팀, 국제조세팀, 조세형사팀, 금융조세팀, GR솔루션팀(조세입법·유권해석), 디지털포렌식팀 등 다수의 테스크포스(TF)팀을 특화해 운영 중이다. 연이은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으로 감독기관의 제재 처분과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르자 최근 회계감리대응 전담팀도 신설했다.

◇ 기업 절세 팀·사전·사후 진단으로 ‘세금리스크’ 없애야 = 강석규 변호사는 “조세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특례법 차원으로 자주 바뀌다 보니 기업들이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정 산업에 대해 특례를 주고자 하는 규정이 생겨도 그 혜택을 잘 몰라서 그대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기업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특례 규정을 찾아 경정청구를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태평양 조세그룹은 과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진단작업’도 실시한다. 강 변호사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기업 회계 처리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며 “전문가 조언과 함께라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오해받을 소지가 큰 길과 작은 길 중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중에 생길 조세 분쟁을 막기 위해 ‘입법 컨설팅’에도 나선다. 강 변호사는 “조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분명하지 않고 서로 모순된 부분도 존재하는데, 나중에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 규정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받는 작업을 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조항이 애매하지 않고 명확하더라도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 2020년 과세당국 동향... ‘조세 형사 사건’ 증가 = 조 변호사는 최근 과세당국의 동향에 대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라며 “재산가의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한 부의 이전을 강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 거래 등 자금출처에 대한 전수조사를 엄정 엄격하게 한다”며 “국세청 과세 부분에 관해서는 탈세뿐만 아니라 체납까지 들여다보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재산국외도피,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 통상적인 기업 소유주나 대주주 관련 사건에서는 법인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이슈도 함께 따라온다. 이에 태평양은 조세팀과 형사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형사팀 역량도 대폭 강화했다. 세무 조사, 검찰(경찰) 수사, 조세불복 및 형사소송 등 세 가지 단계별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강 변호사는 최근 부산의 유명 개발회사에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미 선행 형사사건에서 실거래가액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거래가액을 높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차액을 횡령하거나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불리한 상황이었다.

강 변호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 사건에서는 실거래가액이 일부라도 있으면 아무리 거래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가 될 수 없다는 조세형사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유의 법리를 강조해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조세사건은 행정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사실관계의 다툼은 많지 않고 특유의 법리가 존재해 그 법리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며 “횡령·배임이라는 아주 안 좋은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조세법에선 유리하게 원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사설

세계 절반 한국인 입국 제한, 해외사업 잇단 차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한국인과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고 있다. 5일 오전 기준 96개국으로, 유엔 193개 회원국의 절반이다. 한국 전역, 또는 대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입국을 막은 곳이 40개국, 입국 절차를 강화했거나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격리하는 곳이 56개 나라다. 특히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에서도 16개 성(省)이 한국인들을 격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이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검색해 강제 격리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사전비자 없이 세계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여권지수’ 최우량 국가였지만, 이제 세계 절반의 나라가 한국인을 기피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참담하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국내 전염병 창궐을 막는 데 실패한 탓이다.

그럼에도 해외의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국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외교부는 별 존재감이 없다. 각국에 우리 방역의 투명성과 적극성을 강조하고, 입국 제한에 항의한다고는 하지만 무기력하다. 강경화 장관은 “방역 체계가 허술한 나라들이 투박하게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들이 전염병 차단을 위해 과도한 조치에 나선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하고 있다가 이런 사태를 맞았는지 반성과 책임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기업들의 발이 묶이고 해외 비즈니스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 출장과 미팅, 현지 마케팅 등이 잇따라 중단됐다. 수출과 신규 수주, 해외 사업장 운영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만 수백여 곳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입국 제한이 장기화할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미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한국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조짐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까지 한국인의 입국 제한을 검토중이라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 대구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적절한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 여행이 차단될 경우 견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 아직 한국에 빚장을 걸지 않은 다른 나라들까지 강경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해외 각국이 잇따라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한국이 고립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는 좀 더 철박하게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이 입국을 제한하는 최악의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외교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한 킷



강을 달리는 아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驚蟄)인 5일 서울 여의도 한강에서 갈매기 떼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푸른 물결 사이사이 햇살이 부서지듯 유영하는 하얀 갈매기들이 고요한 한강에 봄기운을 더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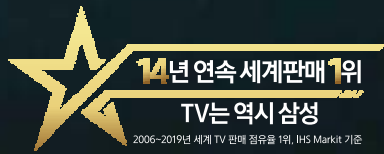


테두리에 갇힌 기술을 넘어
처음 만나는 몰입감의 세계로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



QLED 8K



14년 연속 세계판매 1위
TV는 역시 삼성
2006~2019년 세계 TV 판매 점유율 1위, IHS Markit 기준

2020 All New QLED 8K 사전판매 2020.3.3 - 2020.3.16

사전판매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혜택의 신세계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www.samsung.com을 참고하세요.